



‘돼지열병’ 확산 중인데 농장초소 방역은 여전히 ‘허술’

농장초소물량공세보다 방역기능 강화해야... 고압세척기 등 세척·소독장비 확충 절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농장초소가 이렇다 할 방역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보아주시기 물량공세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발병이 잇따르자 물샴 틈 없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저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외에도 농장 입구에 농장초소를 설치해서 농가에 이르기까지 4단계의 소독과 통제를 거치도록 했다.

농식품부가 ASF를 막기 위해 의욕적으로 설치한 농장초소는 한 달새 1,421개소로 전국에 걸쳐 급증했지만 작작 제대로 된 소독·#8231;세척장비를 갖추지 못해서 방역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ASF 긴급방역지침에 따라 저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의 선정 및 설치, 운영 요령과 설치 규격 기준은 물론 근무자의 근무 요령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농장초소에 대한 규정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 을지역위원장)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20일 182개소였던 저점소독시설은 10월 17일 217개로 늘어났다. 같은 시기에 통제초소는 174개소에서 261개소로 증가했고, 농장초소는 302개소에서 무려 1,421개로 불어났다.

방역초소가 한달전보다 무려 6

배나 늘면서 9월 21일 442명이었던 투입인력은 10월 17일 7,090명으로 16배나 증가했다. 투입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민간인이 2,568명(36.2%)로 가장 많았고, 군인 2,031명(28.6%), 공무원 1,969명(27.8%), 농협 278명(3.9%), 경찰 234명(3.3%)으로 집계됐다.

농장초소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마을주민들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잖은 실정이다.

하태식 한동협회장은 농장초소에 주민들이 하루 3교대를 기준으로 13만5,000원을 받고 일하는데 주민들이 일하다 보니 마을주민들이 초소를 방문해서 술판을 벌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공무원이나 군대를 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농장초소가 한달 사이에 6배나 늘어났지만 방역기능이 강화됐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실정이다. 김현권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장초소는 저점소독시설이나 통제초소처럼 별도 설치 규정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돼 방역기능면에서 여러 가지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농장초소에 대한 별도의 설치 규격이나 필요 장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컨테이너나 천막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치돼 있으며, 방역복, 방역용품, 그리고 소독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개별 농장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농장에 대해선 고압분무기 이상의 소독 세척장비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정작 농장초소에는 200만원대 고압세척기는 고사하고 50만원대 고압분무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농장초소에 설치돼 있는 것은 농약살포나 화초에 물을 뿌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20만원대 일반분무기류로, 차량에 묻은 오물이나 흙 따위를 제거할 수 없다. 사실상 농장초소는 농장 출입자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세척 기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장초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파란색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ASF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은 "ASF가 확산되면서 초소 가 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 지원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농장초소가 제 때에 설치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에 대해 "불어난 초소의 숫자를 보면 촘촘한 현장방역으로 활자를 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실질적인 방역 조치라기보다 숫자 늘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세척만 잘해도 감염원의 90%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농장초소가 이런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ASF 긴급방역지침에 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베이비 측과 이번 주부터 후보지 최종 선정 등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희 시장은 2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비 측과 협상과정에서 2개의 후보지 가운데 땅소유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청과 협의 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데이터센터의 기반시설 및 건축 규모에 따라 진입도로, 전기, 상하수도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1100만 달러 규모 수출상담

대전시는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두바이, 도하, 이스탄불에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5개사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103건 1,102만 3,000달러(132억 원) 상당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시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코트라 무역관이 공동 진행한 이번 중동 무역사절단에는 ㈜스토닉, ㈜케이앤에스아이엔씨, ㈜케이엔텍, ㈜피디케이, 신기술㈜ 등 지역기업이 참가했다.

이번 사절단에 참여한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으로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위성 무선통신기기를 생산하는 ㈜케이앤에스아이엔씨는 최근 드론에 의한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시설 파괴 등으로 높아진 위성안테나에 대한 관심으로 두바이 관련 기업과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휴대용 압력교정기를 제조하는 ㈜피디케이(터키)의 계측기 전문회사인 미네르바(Minerva)에 20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교정기 수출을 추진 중이다.

샤워기 헤드를 생산하는 ㈜케이엔텍은 터키의 정수기 제조업체인 브렐 그룹(BREL GROUP) 현지 방문·상담을 통해 3만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출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번 중동 무역사절단에 참가한 기업들에게 바이어 매칭, 통역비 등을 지원했으며, 참여기업의 제품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지사화 및 사후 출장비 등의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대덕구 아동친화도시터운 홀 미팅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아동정책에 어린이와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선정 타운 홀 미팅'을 지난 26일 구청 청렴관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아동뿐만 아니라 학부모, 아동관계자,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대덕구 아동관련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과 투표를 거쳐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미세먼지차단 숲 조성'이 차체대로 1, 2, 3위 우선과제로 선정됐다.

이날 선정된 과제들은 '아동영양향상'과 '과정을 거쳐 정책 결정에 반영되며, 기타 제안은 아동친화적 사업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등을 관련부서가 검토하게 된다.

세종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준희 세종시장이 28일 최근 네이버 데이터센터 부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베이비 측과 이번 주부터 후보지 최종 선정 등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희 시장은 2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비 측과 협상과정에서 2개의 후보지 가운데 땅소유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청과 협의 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데이터센터의 기반시설 및 건축 규모에 따라 진입도로, 전기, 상하수도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

그러면서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에 따라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고층 등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추천과 비교해서 규모가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고용 등도 2배 이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과 등의 문제점에 대해선 이 시장은 "현재 기술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컨설턴트의 자문 및 경영진·실무진의 의견, 당사의 경영계획 등을 기반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제안 부지를 우선 협상 부지로 선정했다"며 "해당 대표 제안자와 당사의 인터넷데이터센터

(IDC) 건립에 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네이버는 제2 데이터센터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지으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건립 자체가 무산되는 이점을 겪었다.

이후 네이버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지난달 30일 세종(2곳), 경북 구미시, 경북 김천시, 대구, 대전, 부산, 충북 음성군, 경기 평택시(2곳) 등 10곳을 제2 데이터센터 후보 부지로 선정했다.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10개 후보 부지의 실사를 진행한 결과 세종을 우선협상 부지로 결정했다.

세종=김태선 기자

(KSQI) 정당지지도 1위, '더불어민주당' 35.9%

자유한국당 9월 대비 1.1%p 상승한 24.4%, 4달 연속 상승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QI)가 10월 25-26일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5.9%로 1위를 유지했다. 자유한국당은 +1.1%p 상승한 24.4%로 2위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7.1%를 기록하며 3위를 조사했다.



"천안시청 본관 앞에 로봇태권브이가 났다" 기를 전령사인 단풍과 국화의 시기가 다가왔다. 28일 오전 충남 천안시청 본관 앞에 지난 1970년대 인기만화 주인공인 로봇태권브이 조각상을 설치하고, 그 밑에 국화를 식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어민주당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사퇴, 정경심 구속 등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지지도와 같은 35.9%로 1위를 유지했다. 자유한국당은 +1.1%p 상승한 24.4%로 2위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7.1%를 기록하며 3위를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35.9%)은 연령별로 40대(47.6%)와 30대(46.0%), 권역별로 광주/전라(52.1%), 직업별로 화이트칼라(46.1%), 정치이념 성향별로 진보층(64.5%)에서 지지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유한국당(24.4%)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2.2%), 권역별로 대구/경북(35.7%)과 부산/울산/경남(31.5%), 직업별로 가정주부(34.4%)와 블루칼라(34.0%),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47.7%)층에서 다소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7.1%)은 연령별로 50대(10.7%), 권역별로 광주/전라(12.1%), 직업별로 화이트칼라(9.6%),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12.5%)에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바른미래당(5.2%)은 연령별로 30대(8.0%), 권역별로 광주/전라(6.7%), 직업별로 화이트칼라(7.1%), 정치이념성향별로 중도층(8.7%)에서 지지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무당층(20.7%)은 연령별로 20대(36.2%), 권역별로 대구/경북(29.6%), 직업별로 학생(37.0%), 정치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9.3%)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 79.8%, 유선 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qi.org)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복기자

Solution Partner

내일을 만드는 화학

좁디좁은 날만큼 광하게
 하지만 깃털처럼 가볍게
 모두 담는 것은 확실일까
 공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일까
 가능해질 때까지 꿈을 꾸자
 꿈의 소재를 만들자
 모든 것의 기초가 될
 내일의 바탕을 만들자

LG 화학

기술을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소재 솔루션
 LG화학은 공사를 위한 안전을 고려하여, 7개년 안전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100%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년간 유해야생동물 297만 마리 포획...사체 처리 '엉망'

신창현 의원 "고라니, 멧돼지, 오리 등 방치 사체서 감염·오염 우려" "주요 시정성과 집중된 시기, 좋은 결과로 상승세 타야"



최근 비무장지대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까치, 꿩, 오리,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 사체들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유해야생동물 포획량은 총 297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까치가 106만 마리로 가장 많았고, 고라니 65만 마리, 꿩 26만 마리, 오리류 25만 마리, 멧돼지 19만 마리, 청설모 2만 마리 순이다. 포획수량은 2014년 37만 4천 여 마리에서 2018년 73만 7천 여 마리로 4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은 2005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사체처리에 대해 올해 8월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했지만 상업적인 거래와 #8231:유통을 금지할 뿐 포획 당사자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획 이후의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다.

신창현 의원은 "연간 수십만 마리의 동물 사체를 처리하면서 안전처리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인수공통 바이러스 보균 가능성이 있는 동물 사체부터 안전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허태정 대전시장, 주간업무회의서 강조



혁신도시법 개정, 대전시티즌 운영방식 등 중요 사안이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허 시장은 "이달 때 성과를 이루는 결과를 내면서 기세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며 "연말까지 집중해서 성과를 확대해 우리시에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자"고 독려했다.

또 이날 허 시장은 지방자치 강화에 맞게 시장행사의 진행방식 변화를 주문했다.

허 시장은 "지방자치 강화되면서 각 지역에 맞는 정책 스타일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지자체는 늘 일선에서 시민과 만나서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허 시장은 "사업이나 행사를 관련기관이나 용역을 통해 수행하는 방식에서 각 실국이 직접 진행하는 비중을 높여 우리시만의 특색을 강화하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 시장은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정리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신규 사업을 과감하게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허 시장은 "관행적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을 내년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부시장이 중심이 돼 내년 사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이날 허 시장은 각 자치구별 내년 현안 사업 정리 및 국회의원과의 공조 강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김태성기자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장, 청소년과 대화의 장 열어

'청소년 평화나비' 임원과의 만남... 청소년 정책 등 건의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 청소년 평화나비회장 김나린, 당진고3 임원 및 시의회 관계공무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11월 2일 열리는 '제4차 평화나비 페스타'에 대한 설명과 관심을 부탁으로 그동안 청소년들이 느꼈던 애

로사항과 그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당진시 청소년 평화나비 회장 김나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매년 뜻깊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이 세상에 대한 외침으로 고마운 마음과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선한 오윤희 어울림 여성회장은 "전국적으로 평화나비가 구성된 곳이 몇 곳이 있는데 당진처럼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곳이 없다"며 "청소년들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 청소년 평화나비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진 청소년 동아리로 2016년 9월부터 활동을 이어 오고 있으며, 총 100여명의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잇따른 국책사업·기업유치 실패는 민주당 무능때문"

자율한국당 대전시장이하 대전시당은 네이버가 제2데이터센터 우선협상 부지로 세종시를 선정하고, 대전시가 탈락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시당은 28일 성명에서 "대전시가 대형 국책사업 유치 실패에 이어 이번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도 성공하지 못해 과연 위기에 빠진 대전경제를 극복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그 동안 대덕특구라는 비교우위와 강점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파크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패에서 보듯 대전시의 좌절과 소외의 열차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당은 "최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탈락전과 세종시로의 급속한 인구 유출 현상 그리고 국책사업·민간기업 유치 실패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패배와 풀대, 그리고 대전시정을 담당해 오고 있는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전시는 이번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빨간불 켜진 대전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시기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마련과 함께 CEO로서의 대전시장의 과감한 인식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유병국 의장 "올바른 효 사상 정립은 우리의 몫"

제13회 충남노인복지협회 한마음축제 효 문화중요성 강조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28일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효(孝) 사상을 정립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날 예산 스포츠플리움에서 열린 제13회 충남노인복지협회 한마음 축제에 참석해 "일제강점기와 민족전쟁이라는 질곡의 역사 속에서 나라와 자식

를 위한 헌신적인 희생이 없었다면 이땅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멸시하지 못한다'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며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가짐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기본"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경제성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 기반으로 인생의 황혼기를 힘겹게 보내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각종 지원정책과 복지재원 같은 빈부 격차 해소 방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세대간 존중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효 문화를 되살리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어르신들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살피는 데 앞장서 온 노인복지협회 회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며 "도의회에서도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 생활 어르신 복지 실현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명수 국회의원, 도내 노인생활시설 임소·군무지회 자원봉사자 등 5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정환기자

박병석 의원 "시대 변화 반영한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

약 30년이 지난 한국국제협력단법설립 목적 조항개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발협력원조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설립 목적이 약 30년 만에 개정될 전망이다.

박병석 의원(민주당·대전서갑·사진)은 28일 코이카의 설립 목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코이카의 설립 목적을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의 우호협력, 상호교류 증진, 경제사회발전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1991년 코이카를 설립할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코이카의 설립 목적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의 실현,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으로 규정했다.

이정복기자

고무열 평화당유성갑위원장, 국감 우수 모니터링단 감사장 수상

평화당 국정감사 우수 모니터링단 시상식



평화당은 28일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국정감사 우수 모니터링단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한 당에 이바지한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지역위원장 등 당내 고위인사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삼일위법 주요 쟁점 현안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공론화했다.

이정복기자

이날 고무열 <왼쪽에서 두번째> 유성갑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활동과 산자위에서 조배숙 원내대표와 (주)무주덕유산리조트 갑질근절대책위원회를 통해 당에 참여한 당에 이바지한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지역위원장 등 당내 고위인사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삼일위법 주요 쟁점 현안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공론화했다.

이정복기자

"관평·구즉동 일대 악취문제 해마다 개선책 없이 반복"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 구정현안사업 대한질문



대해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유성구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유성북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상권과의 상생 발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어 주변 골목상권의 붕괴를 막고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동에 추진중인 현대프리미엄아파트 또한 주변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과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불편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3월 본의

원이 건의문을 통해 지적했던 대전대덕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에 따른 교통문제해결방안에 대해 그동안 검토한 결과와 주변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관평동 구즉동 일대의 악취문제는 해마다 개선책 없이 반복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 또한 많은 문제점들을 들어내며 주민들의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한다"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김정환기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가능성 낮을 것"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실현 가능성 낮게 여기고 있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고위공직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대학 입시 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낮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입 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9월 4일)에서는 '수시(22.5%)'보다 '정시(63.2%)'가 보다 바람직한 대학입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여야 4당이 잇따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낮게 여기고 있다.

세미나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두 개의 세션으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1세션은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주재한다.

2세션은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치분권 핵심이슈 진단'을 주제로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주재한다.

합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전수 조사하는데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입 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9월 4일)'에서는 '수시(22.5%)'보다 '정시(63.2%)'가 보다 바람직한 대학입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여론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높음 19.7% vs 낮음 80.3%), 경기·인천(24.3% vs 68.2%), 대구·경북(19.8% vs 68.2%), 부산·울산·경남(24.5% vs 64.0%), 서울(30.5% vs 59.5%), 광주·전라(33.9% vs 49.2%), 연령별로는 40대(18.4% vs 73.6%), 20대(25.4% vs 70.4%), 50대(27.7% vs 67.2%), 30대 이상(29.4% vs 64.1%), 60대 이상(23.5% vs 58.7%), 이념성향별로 보수층(19.3% vs 74.8%), 중도층(26.8% vs 66.9%), 진보층(30.4% vs 64.4%), 지지정당별로 바른미래당(9.5% vs 87.0%)과 자유한국당(20.6% vs 73.1%), 더불어민주당(28.9% vs 60.4%), 정의당(39.0% vs 58.0%) 지지층, 무당층(20.6% vs 60.6%) 등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대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25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6,95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7.2%의 응답률(응답률 제외 목적적으로 표집률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 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이정복기자

육설·구타·성차별 등... '제100회 전국체전' 인권실종의 '종합판' 이었다

인권위, 전국체육대회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의 14개 주요 종목육상, 축구, 농구, 배구, 야구, 핸드볼, 배드민턴, 유도, 레슬링, 복싱, 씨름, 검도, 태권도, 역도에서 고등학교 학생 운동선수를 중심으로 언어폭력·신체폭력·성폭력·기타 인권침해 여부 확인 등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선수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조사관과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20여명의 인권상황 모니터링단이 경기장 내외부 점검, 경기 내용 관찰, 선수 인터뷰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과열 경쟁과 권위주의적 문화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이 확인됐다.

올해 전국체전은 제100회를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만큼, 주최기관인 대한체육회 역시 개막식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 가능한 스포츠인권센터 안내 동영상 등을 송출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대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경기가 과열되면서, '경기에 패배했다', '경기를 잘 하지 못했다', 등의 이유로 일부 지도자들이 고등부·대학부 선수들에게 심한 욕설·고성·폭언·인격 모욕 등의 행위를 했으며, 이는 종목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공연히 목격됐다. 특히, 일부 구기 종목에서는 감독의 폭언에 관중이 보다 못해 '저게 감독이나, 욕하지

마라'고 말할 정도였다.

남자 지도자는 경기 내내 여자 고등학교 선수들에게 소리치고 화내고 욕을 했으며, 선수를 북돋워 주는 등 마치 물건 다루듯이 했다. 남자 지도자는 여자 선수들에게 '야! XX야, XXX야, XXXX야, 죽을래, 그 따위로 할 거야? 미쳤어? 나가! 너 뭐 하는 거야? 장난해' 등의 폭언을 할. 해당 폭언을 들은 관중들이 '저게 감독이나, 욕하지 마라, 도대체 뭘 배우겠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종목에서 심판이 경기장 안 내 여성 직원에게 '아 딱 내가 좋아하는 몸매야, 저런 스타일은 내가 들고 업을 수 있지'라고 발언하는 장면도 목격됐으며, 일부 종목에서 작전 타임에 남자 코치가 여자 선수의 목덜미를 주무르고 만지는 장면도 목격됐다.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고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땀을 흘린 채, 종목단체 임원 등 고위직들의 훈화를 들어야 했고, 특히 일부 여성 선수나 자원봉사자들은 단상에 마련된 좌석의 종목단체 임원들에게 다과 수발을 하는 성차별적인 의전 장면도 많은 경기장에서 빈번하게 목격됐다.

더불어, 대부분의 종목에서 학생선수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경기장 입구 등에서 무분별하게 흡연하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경기장 내부까지 담배 냄새가 유입되어 학생선수들이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또한, 일부 관중이 선수들에게 지역감정에 기반한 비난을 하거나, 여성 선수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의 성숙하지 못한 관중 문화도 목격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대규모 경기대회를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관중에 의한 혐오나 비하, 성희롱적 발언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니터링을 했던 대부분의 경기장에서 탈의실·대기실·훈련실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선수들은 관중석에서, 복도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온 간이 매트 위에서 관중들과 섞인 채로 쉬고 훈련하고 몸을 풀었다.

전국체전은 국내 경기 중 최고의 위상을 가진 대회로 선수들은 자신의 모든 기량을 쏟아 부었다. 따라서 그러한 경기를 준비하는 주최측, 종목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선수들이 최선의 기량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위와 같은 인권침해 및 권위주의적 문화는 개선할 의무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높은 단상에 앉아서 어린 여성들의 차 심부름을 당연한 듯이 받고 있는 구시대적 단상 문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위 사례와 같은 신체 접촉이 해당 종목에서 '격려나 응원'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스포츠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은 훈련, 교육, 격려 행위와 혼동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이를 방지한 성

폭력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스포츠분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복 기자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대전 기업 27곳 선정

대전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한국고용정보원·한국기업데이터·사람인·잡플래닛 5개 기관이 공동 평가한 올해의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639곳 중 대전 기업 27곳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최우수 중소기업으로 전국 8개시 가운데 ㈜위드텍과 로쏘㈜ 2곳이 선정됐다.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은 근무 환경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참가신청을 받아 신용등급 BB이상,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 전년도 수익률 순증가 등을 평가하며 재직자 평점 상위 30% 기업을 선별한다. 이 외에도, 청년이 선호하는 CEO의 비전과 철학, 기업 성장가능성, 직원추천율, 임원 역량, 사내문화, 승진기회, 워라밸, 복지·급여 등 8개 테마별로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정보는 대한상의의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사이트(<http://goodcompany.korch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채용중인 기업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원플릭' 지원도 가능하다.

정성욱 회장은 "높은 연봉과 다양한 복지를 제공함에도 지역 우수중소기업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 구인난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 청년들도 이번에 선정된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구직활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전지역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27개사는 다음과 같다.

㈜나노프로텍, 비드코칭연구소, ㈜위드텍, ㈜에오프, 비엔에프 테크놀로지, 유온시스템, 넵코어스, ㈜세이디에스, ㈜인택플러스, ㈜대덕분석기술연구소, ㈜소프트아이텍, ㈜중앙백신연구소, ㈜두드림, ㈜세트랙아이, ㈜택코드, ㈜디엔에프, 아이쓰리시스, ㈜플랜아이, 로쏘, ㈜알에이, 에이치엔에스하이텍, 한국센서연구소, ㈜비네아, ㈜에람, ㈜나노시스템

송병배 기자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세종 유치, 34만 시민과 함께 환영"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네이버가 지난 25일 자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우선 협상 부지로 세종시 제안 부지를 최종 선정함에 따라 세종시 출범 이후 최대 민간 자본 유치가 가시화됐다.

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사신> 의장은 28일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우선협상 부지 세종시 선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약 5,4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민간 투자 사업에 세종시가 함께 하게 되어 34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부지 선정에는 총 96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그중 10개 후보지를 선정해 심사와 부지·인문환경 분석 등을 거쳐 세종시가 최종 우선협상대상지로 낙점됐다.

전력공급량 200MW와 하루 물 5,100t 공급 등 부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스마트도시의 빅데이터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정책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곳으로서 세종시의 부지 제안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서 의장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뚫고 세종시가 최종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집약체인 스마트도시 시대를 준비하는 세종시의 현재 위상과 미래 가치를 대의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가 계획대로 들어설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고용 창출

과 세수 증대 효과는 물론, 관 주도 아닌 민간 영역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서 의장은 "데이터센터 유치가 큰 성과를 거둔 만큼 세종시의회 역시 향후 각종 지원책을 함께 고민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용과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에 들어서는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는 2020년 상반기 중 착공해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우리기업 상표 해외서 무단선점 의심사례 대거 발견

특허청, 279개 상표, 해외 62개국에서 총 1,140건 선점 의심

특허청은 해외 각국에서 우리기업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실태 조사한 결과 총 62개국에서 1,140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상표 DB(WIPO-GBD, TMview)가 활용됐으며, 중국, 베트남 등에서 이미 파악된 무단선점 의심 영문상표 906개를 대상으로 이들 상표가 글로벌 상표 DB 내 56개 국가에서도 선점됐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선점의심 사례가 발견된 상표는 총 279개로 62개국에서 1,140건이 발견됐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204건(17.9%), 태국 116건(10.2%), 싱가포르 83

건(7.3%) 등 아세안 국가(8개국) 594건, 52.1%에서 가장 많았고, 유럽국가(22개국) 189건, 16.6%에서도 다수의 선점의심 사례가 나왔다.

또한, 업종별로는 전자·전기(361건, 31.7%), 화장품(121건, 10.6%), 식품(103건, 9.0%), 프랜차이즈(100건, 8.8%), 의류(82건, 7.2%) 업종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개별 상표로는 국내 유명 화장품 및 제과 업체 상표에서 의심사례가 많았다.

특허청은 이번에 파악된 선점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에게 피해정보를 제공하고, 11월 중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대응 교육과 함께 기

업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그리고 글로벌 상표 DB(WIPO-GBD, TMview)에서 상표를 검색하는 방법과 선점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하여 우리기업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종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무단선점 의심 사례가 대다수 국가에서 나타났는데, 경쟁업종이 아닌 상품류 뿐만 아니라 경쟁업종에 등록된 사례도 많이 보인다"며 "우리기업들 스스로도 자사상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주기적으로 상표선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외에도 아세안 주요 국가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사)재독한인간호협회 회원들, 대청호반 국화전시회장 방문

28일 오후 (사)재독한인간호협회 박소향 회장을 비롯한 17명의 회원들이 대전 동구 대청호와 자연수변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19년 대청호반 국화전시회'장을 찾아 김성규 대전투데이 사장 국선서연구소, ㈜비네아, ㈜에람, ㈜나노시스템

이들의 국화전시회 방문은 강원원장이 적극 나선 것으로 평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박소향 회장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들을 초청해 너무 아릅답고 볼거리가 많은 국화축제에 초대해 주셔서 강 의원님께 감

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강정규 위원장은 "지난 1970년대 어려웠던 시기 고국을 떠나 먼 타국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평소 존경해 왔다"면서 "비록 초췌한 자리지만 오랜만에 모국에 와서 좋은 추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매년 10월 마지막주 화요일은 '금융의 날' 로 저축을 생활화 합시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회장 김 용 진

행정안전부 인사과 인사정책팀장 김성민 042-4711-5107

대전북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전 영 근

한밭새마을금고 이사장 천 순 상

가양1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서 영 길

홍도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이 덕 기

중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정 일 양

한마음새마을금고 이사장 서 인 석

우리새마을금고 이사장 박 용 성



● 특 정 ●

국방산업대·중·소기업 상생한미당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29일 오후 4시 30분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열리는 2019년 국방산업대·중·소기업 상생한미당에 참석.

안전한국훈련 토론 기반 훈련



황인호 동구청장 = 29일 오후 2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대비 다중밀집 시설 복합재난 토론훈련을 개최.

다중밀집시설 복합재난 토론훈련



박용강 동구청장 = 29일 오전 10시 청사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대비 다중밀집 시설 복합재난 토론훈련' 주제.

흡연·음주 예방 뮤지컬



장종태 서구청장 = 29일 오전 9시 50분 서구청 구농산홀에서 열리는 2019 흡연·음주 예방 뮤지컬에 참석한다.

안전한국훈련 현장대응훈련



정동래 유성구청장 = 29일 오후 3시 대덕대학교 정곡관에서 열리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대응훈련에 참석한다.

도시공간정보(드론) 콘퍼런스 성료

대전시는 28일 오후 2시 시청 2층 로비와 세미나실에서 도시공간정보(드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공간정보 관련 산업체, 대학, 연구소, 국토교통부와 전국 시·도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대전시는 첨단정보기술과 융합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도시공간정보 콘퍼런스'를 열어 공간정보 기술 교류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자본확충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올해는 '드론의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국 드론산업협회 박석종 회장의 '4차산업혁명과 드론산업 현황' 등 전문가 3인의 초청강연을 통해 세계 공간정보 기술동향 및 새롭게 부상하는 융·복합 산업 기술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이날 시청 남문광장에서 진행된 드론(무인항공기) 시연과, 2층 로비에 마련된 첨단 드론 시연·체험 프로그램은 참석자 중·고등학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새로운 공간정보 구축 시스템 분야로서 3차원(3D) 입체측량 시연과 위성영상 공간정보 시스템 데이터 처리 시연, 지적공간서비스 플랫폼, 지상리이다 측량 등 최첨단 위치측정 장비 등을 직접 체험하는 코너도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행사가 관련분야의 산·학·연·관이 함께 상생하고, 차세대 신 성장동력으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간정보산업의 메카도시로서 대전의 위상이 한층 높아져 관련 산업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테미오래 '시민주도형' 경영으로 혁신

시, 전문가 확대... 8개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시민힐링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테미오래가 '시민 주도형' 경영 혁신으로 거듭난다.

대전시에 따르면 테미오래 운영을 위해 협력해온 유관기관(단체)과 청년기업, 향토서점 등 8개 기관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테미오래 커뮤니티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프랑스문화원(전장근 대표)과 영상장비 전문기업 코노바(KONOVA)임재홍 대표, 대전만화협회 디쿠(DICU)강보석 대표, (사)한국연극협회 대전지회(복영한 대표), 역사교육 및 체험 예비사회적기업 사유당(이주현 교수), 대전재즈협회(박종화 대표), 청년기업 아트샵 21(김한솔 대표), 지역향토서점 계룡문고(이동선 대표)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으로 8개 기관은



'문화예술촌'으로써 테미오래의 위상을 확립하고, 운영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테미오래 운영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들 기관이 뜻을 모으게 된 배경은 테미오래가 다양한 볼거리

와 체험거리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운영을 맡은 컨소시엄의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한 시는 테미오래 운영에 중

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테미오래 운영위원회'의 역할보강을 위해, 위원 4인(교수, 변호사, 문화기획자, 아트디렉터 등)을 추가(구성)키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테미오래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기업, 예비직사회기업, 협력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공동·협력해 테미오래를 지역문화브랜드의 신경영모델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문화버스킹대덕유랑단 공연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청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버스킹 '대덕유랑단' 공연을 10월의 마지막 밤 저녁 6시 한남대학교 린튼공원에서 연다.

'대덕유랑단' 문화버스킹은 청년과 주민에게 일상의 삶속에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로 찾아가는 광장형 공연으로 기획됐다.

대전지역 스트릿 퍼포먼스로 유명한 비비이 맨스팀 빅버스트의 공연을 시작으로 베이비 웹툰 '홍차리브레' 꼬모소이 작가 초청 강연, 윤다년 재즈 듀오의 재즈 공연, 온라인 속 화제의 인물 충주시 SNS홍보 담당 김선태 주무관의 강연이 준비돼 있다.

김원규 북학문화센터장은 "이번 공연이 깊어가는 가을밤 대덕구 청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힐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를 참조하거나, 대덕구 북학문화센터(☎ 042-608-6295)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돌입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내달 1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재난유형에 대해 실천 위주 훈련으로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재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됐다.

훈련은 28일 ▲직원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29일 ▲가스 폭발 대형화재 토론기반 훈련, 30일 ▲전국 지진 대피훈련 ▲재난 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31일 ▲가스 폭발 대형화재 현장훈련과 내달 1일 ▲불시 화재대피훈련을 끝으로 훈련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구는 현장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동시에 구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을 통해 실천 대응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안전한국훈련 체험단을 운영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동구, 천사의 손길 온도탑 및 천사나무 제막식

천사의 손길의 나눔 역사 증명하는 동시에 홍보 계기 마련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28일 구청 1층 로비에서 동구를 대표하는 복지브랜드 천사의 손길 온도탑 및 천사나무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천사의 손길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천사의 손길을 대표하는 나눔냉장고, 평동빨래방과 같은 사업들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막식은 뮤직트리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제막식, 기탁식 및 온도탑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천사의 손길 온도탑은 그간의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집대성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대형 온도탑으로 형상화했으

며, 천사나무는 ▲나눔냉장고 ▲평동빨래방 ▲설렘쿠폰 ▲천사저금통 ▲두개비집수리 봉사단 등과 같은 현재 결실을 맺고 있는 천사의 손길 대표사업들을 나무 열매로 표현했다.

온도탑에는 천사의 손길 역사를 대변하는 총 40억 2천 2백만 원의 기부액과 2019년의 기부액 현금 6억 3천 3백 1십만 원, 3억 5천 8백 8십만 원 가치의 현물액이 빨간 체온으로 표시돼 많은 이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제막식 이외에도 오웬티(주)대표 오명탁과 ING산업(주)대표 허성준이 5백만 원을 천사의 손길에 기탁해 천사기업과

나눔리더 인증을 받았으며,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 신인수)가 약 7천 7백만 원 상당의 핸드폰 케이스를 전달했다.

이어 대전봉사체험교실(대표 권홍주)과 대전지방보훈청(청장 이남일)이 6백만 원 상당의 난방유류 기탁해 지역 내 국가유공자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동구의 대표 복지브랜드 천사의 손길의 역사가 거대한 체온계와 나무로 형상을 함께 나누며 많은 분들이 소액기부에 동참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죽보에 대해 궁금하면, 배달하세요"

한국죽보박물관 '찾아가는 죽보대학' 29일부터 접수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운영하는 한국죽보박물관에서 '찾아가는 죽보대학'을 운영한다. 10명 이상 주민이 모인 곳으로 원하는 시간에 방문해 약 2시간 동안 죽보상식, 죽보의 역사와 성씨 내

력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11월 중 운영하며,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홈페이지 또는 한국죽보박물관 학예연구실(042-288-8312, 8316, 8317)로 하면 된다. 선착순 8개 단체를 모집한다.

박용갑 청장은 "내 이름이 써 있는 죽보가 어떻게 탄생해 이어져왔는지 등 나의 뿌리를 재미있게 알 수 있는 방문교육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구 '2019년 하반기 소방훈련' 실시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8일 샘머리 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겨울철 화재를 대비한 '2019년 하반기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상하여 서구청사 1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에 화재가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자위소방대의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화재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샘머리 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또한, 중점 훈련사항으로는 자위소방대에 의한 화재 통보 및 전파, 청 내 직원들의 신속한 대

피를 위한 유도원 배치훈련, 소화기·소화전을 이용한 화재의 초기진화 훈련 및 심폐소생술 시범 등이었으며, 훈련 종료 후에는 자위소방대별 임무 수행능력 및 미비점 보완에 대한 강령을 했다.

서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화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평상시 철저한 준비와 훈련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인·근 소방서와의 지속적인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해 체계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배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멘토링 사업 실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진행한 '멘토링 지원사업'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사회사업파트는 지난 26일 김은석 원목심장신부, 사목회원과 함께 박도(76세) 등 멘토링 대상자 3명의 가정을 방문, 영적지지와 함께 난방용품을 전달했다.

박씨는 지난 4월과 7월 계단 및 집안에서 각각 발생한 낙상사고로 두 무릎관절과 고관절이 골절돼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정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박씨의 수술비는 대전성모병원 교직원 후원금인 '성모자선회'가 지원했다.

또 다른 수혜자 강모(71세)씨는 평소 무릎 통증으로 걷기가 힘들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미뤘던 중 지역의 한 성당으로부터 멘토링사업 대상자로 의뢰돼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의료비 전액은 성모자선회를 통해 지원됐다.

원반은 문도(70세)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는데 대전성모병원에서 안부 연락도 자주 해주고 집에 방문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다"며 "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불과 온풍기까지 선물해주셔서 이번 겨울은 따뜻할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용남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장은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욕구 파악과 더불어 자선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병원이 뜻을 모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나눔을 실천해 나갈 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은 지역민을 위한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멘토링 지원 사업을 진행,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물품 지원, 가사서비스, 주거환경개선 등 대상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유성구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대전시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8일과 29일 양일간 대형화재 및 건축물 붕괴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13개 협업부서와 18개 기관·단체 400여 명이 참여해 현장조직 행동대 뉴얼 대응훈련을 통한 재난현장 대응체계 매뉴얼을 점검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28일에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대형화재 및 건축물 붕괴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각 기관·단체, 부서별 재난대응 임무와 역할에 대해 토의하는 토론기반훈련이 실시되

고, 29일에는 대덕대학교 정곡관의 화재 발생과 폭발로 건물 일부가 붕괴되는 것을 가정한 현장 대응훈련이 실시된다.

특히, 올해 현장 대응훈련에서는 건축물안전진단 분야의 민간 전문기업이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반시민들의 체감과 관심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매년 다양한 유형의 훈련 주제를 설정해 강도 높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재난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천과 같은 자세로 훈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 동 정 •••

더불어민주당예산정책협의회



양승조 충남 도지사= 2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대형화재 대응 현장훈련



김석환 홍성군수= 29일 오후 2시 은하면 일원에서 열리는 대형화재 대응 현장 훈련에 참석.

국제컨퍼런스개회식



서극택 세종시의회의장= 29일 오전 9시 20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자율주행보빌리티 국제컨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하고, 오후 5시 보람동복합에서 열리는 보육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사회적 약자 안전 보장 '안전한길 조성' 완료

홍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지난 26일 '안전한 길 조성사업'으로 우범지역위험에 대한 보안등설치 및 벽화길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길 조성사업'은 홍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여성친화 인프라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판대 초등학교에서 학생·학부모·시민참여단과 선생님들이 참여해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위험환경으로 선정된 곳을 안전한 길 조성사업을 통해 환경개선을 하고 있다.

2019년 아동안전지도 대상지는 홍성초, 내포초와 은하초가 선정되어 군은 보듬손길 벽화봉사단과 함께 벽화그리기사업을 완료했다. 이어 안전총괄과와 협력하여 구항초 앞 골다리와 한국전력공사 앞 골다리의 보안등 설치 및 벽면도색을 완료해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길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이 밖에도 홍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홍성군 및 홍성경찰서를 비롯한 11개 민관기관과 협력하여 2008년부터 아동·여성 안전망의 구축, 위기관리 및 피해회복과 예방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9년부터는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 군비로 운영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무사례협의회, 폭력예방캠페인 및 폭력예방교육사업, 안전지원을 위한 피해자 긴급보호시설 운영, 행복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장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의 안전보장과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세종시·내포 '스마트시티 팔로인' 행사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의견 수렴·아이디어톤 등 진행

세종시(시장 이춘희)와 LH(사장 변창흠)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과 관련 27~28일 2일간 '세종 스마트시티 팔로인(follow+人)'을 세종시청과 보람동 복합에서 개최했다.

세종시와 LH는 국가시범도시의 계획단계부터 운영·관리까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곧 스마트 시티의 완성'이라는 전제하에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의견 수렴 ▲아이디어톤* ▲업무협약식 ▲토론회 ▲미니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부분의 행사는 시청에서 이뤄지고 장시간 토론이 필요한 아이디어톤은 보람동복합에서 진행했다.

시민의견 수렴은 21일부터 8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였고, 아이디어 톤은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연계방안,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제로 27일과 28일, 29일 동안 보람동복합에서 진행했다.

또한 세종시와 LH의 업무협약,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이라는 주제로 정재승 교수의 토크콘서트, 세종거리예술가 '다담'과 '리하모니'의 공연, 가수 '노라조'의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다.

세종시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를 MR총괄계획가로 선임해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플랫폼'이라는 철학을 담아 국가시범도시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이춘희 시장은 "실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민 주권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는 혁신적인 시민참여 플랫폼을 운영하겠다"고 당부했다.

김태선 기자



새조개 양식 해수부공모 선정

올해 새조개 인공부화 기술 개발에 성공한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내년부터 '대량 완전양식'에 도전한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천수만 새조개 대량 생산을 위한 양식 기술 개발'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연구·교습 어장 사업에 선정,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내년부터 3년 간 새조개 인공부화부터 상품 생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 대량 완전양식 최적 방법을 찾는다.

연구는 실내·외 양식장 등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각 양식장에서 새조개 생산과 성장도, 투입 노동력 및 비용, 상품성,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새 부리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 이름 붙여진 새조개는 쫄깃한 식감과 바다향 가득한 맛 때문에 서해안 대표 겨울철 별미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 새조개는 2003년 1156톤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내리막길을 거듭, 2012년 이후에는 통계청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생산량이 급감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남획으로 인한 어미 자원 붕괴,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을 생산량 급감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2016년 도내 새조개 모래를 활용한 인공부화 기술 개발에 착수, 올해 어린 새조개 생산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생산한 0.5~1cm 크기의 새조개를 홍성 죽도 인근 바다에 살포, 환경 내성 시험 연구를 추진 중이다.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승인

세종시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사업이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은 연서면 월하리 일원에 연기비행장을 폐쇄하고 총사업비 2,593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국방부 사업계획 승인으로 세종시가 사업시행자로서 보상, 토지수용 등의 법적지위를 확보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재교 도시성장본부장은 "이번 사업계획승인으로 사업이 본격화 되면, 소음완화, 재산권 회복, 세종시 균형발전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상 등 향후 사업추진에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시는 올해 말까지 보상계획 및 설명회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시행하여 '20년 하반기에 착공, 2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은 40여년간에 걸친 숙원사업으로, 2011년부터 인근 주민 2,600여명이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청하여 2013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선으로 군부대 통합 이전을 결정했고, 2018년 7월 국방시설본부와 세종시가 합의각서를 체결 한 바 있다.

홍성군에서 가을 억새도 보고 김장 준비까지

오서산, 하산 후에는 '명품' 광천토굴새우젓으로 김장 준비 끝



홍성군이 늦가을 전국의 가을여행객들을 설레게 할 야심찬 여행 코스를 소개했다.

군은 홍성 광천읍에 오면 역사적 장관으로 유명한 가을 오서산도 보고 김장의 필수 아이콘 최상품의 광천토굴새우젓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남 제3의 고봉인 오서산(790.7m)은 천수만 일대를 향해하는 배들에게 나침반 혹은 등대 구실을 해 예로부터 '서해의 등대산'으로 불려왔다. 하나의 산자락이 정상까지 죽 이어진 형태의 오서산은 수려하고 단순한 멋을 품고 있다. 정상에 오르면 서해안의 최고봉답게 인근의 산과 들판을 굽어 볼 수 있으며, 서쪽으로는 서해안의 바다와 작은 섬들을 보는 전

망도 좋다. 하지만 오서산 산행의 키포인트는 가을철 산 정상부근을 누비는 역사의 물결이다. 9부 능선부터 시작하는 억새밭은 약 2km가량 이어져 가을이면 많은 산행객들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정암사에서 정상까지 구간은 가파르면서 군데군데 바윗길이라 지리해 약 1시간동안 산행 기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어 동호인들이나 가족 등반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 오서산은 장항선 광천역에서 불과 4km의 거리에 위치해 열차를 이용한 산행 대상지라도 인기가 높다.

또한 가을 성수기를 맞아 오서산 상담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오서산 표고버섯 톳 주먹밥(개당 5천원) ▶오서산 건강 영양밥(개당 6천원) ▶오서산 간식 꾸러미(개당 3천원) 등 세 가지의 건강 도시락을 출시했다. 도시락 주문은 수령일 기준 1일 전 정오까지이며 산행 당일 오전 8시~10시에 예약 후 수령할 수 있고 최소 주문 수량은 15개이다.

오서산 등산객뿐만 아니라 도시락 주문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영농조합법인(041-642-76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서산 인근에는 1926년에 개장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천토굴새우젓 시장으로 익히 알려진 광천 전통시장이 있다. 이 시장은 상설시장과 4, 9일에 열리는 정기시장이 같이 열리고 있어 김장철에는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광천토굴새우젓은 토굴 속 일정 온도를 유지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토굴에서 2년 동안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간하여 쫄깃한 맛과 향을 자랑한다. 토굴에서 조미료와 물도 첨가되지 않고 자연 발효되어 숙성된 광천토굴새우젓은 전국 최고의 명품 새우젓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광천읍에 오셔서 가을산도 즐기시고 전통시장에 오셔서 김장도 준비하시면 잊지 못할 추억여행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양승조 지사, "질 좋은 요양서비스 위해 함께 나서자"

제13회 충남노인복지협회 한마음 축제 참석



양승조 충남지사는 28일 예산 스포라스리움에서 열린 '2019년 제13회 충남노인복지협회 한마음 축제'에 참석했다.

충남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노인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양 지사와 유병국 도의장, 이명수 국회의원, 도내 노인생활시설

인소자 및 근무자, 자원봉사자 등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전시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양 지사는 노인복지시설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전시 작품을 관람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민요·트로트 및 품바 등의 공연도 펼쳐져 참가자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공동생활시설 등 전국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천안시, 청양군, 예산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운영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도 확대할 것"이라며 "종사자 보수 교육을 정기 실시하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노인생활 및 재가시설 종사자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처우개선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종사자들이 가사도우미 취급을 받거나, 성희롱과 인격 침해 등을 겪지 않도록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전시 작품을 관람했다."

제16회 예산황토사과축제 개최

예산군, 다음달 1~2일 예산역전시장서

예산군은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예산사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16회 예산황토사과축제를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예산역전시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예산황토사과축제는 1983년 제1회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개최돼 올해로 16회를 맞이했으며, 군은 내년부터 예산황토사과의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해마다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예산황토사과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권오영)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과축제는 도시민 관광객 유치에 위해 11월 1일 용산역에서 출발해 예산역에 도착하는 사과열차를 운행하고, 예산황토사과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시중 가격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사과를 판매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포장(봉지) 판매에도 나선다.

축제 첫날인 1일에는 오전 11시 풍물놀이와 난타 등 식전공연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과 품평회와 개장식, 애플 밴드 공연, 읍·면대학 게임, 스포츠댄스 공연, 예산대중문화에 어울릴 공연, 과수농업인 노래자랑 및 사과게임, 시상 및 행운권 추첨, 가요TV 공개방송 녹화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2일에는 시크릿 밴드 공연, 보부상재현놀이, 청소년 장기자랑, 시상 및 행운권 추첨, 폐회식이 진행된다.

김성구 기자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 체험존 운영

세종시, 11월 1~2일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때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내달 11월 1일~2일 이틀간 '제6회 어린이 안전체험축제'를 맞이하여 '어린이 스마트폰 과의존(過依存) 안전 체험존' 부스를 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운영한다.

운영되는 부스에는 세종시 스마트쉼센터(소장 홍원기) 소속 스마트폰 상담사 및 과의존 예방교육 강사들이 참여하여, 유·아동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으로는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검사 및 ▲사탕팔 만들기, 타투스티커 등 대안활동으로 구성된다.

세종시청 최필순 정보통계담당관은 "어린이 스마트폰 과의존 안전 체험존" 활동을 통해 유·아동의 스마트폰 활용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해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동, 부모님과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세종시 스마트쉼센터(044-300-2471~72로 연락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지구환경을 지키는 ECO 놀이풍경 행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종아동보호센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종아동보호센터는 지난 26일 초록우산어린이도서관에서 '지구환경을 지키는 ECO 놀이풍경' 동화잔치 행사를 진행했다.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 테마는 "지구환경을 지키는 ECO 놀이풍경"으로 우리의 노력을 통해 미래 자원인 자연 환경이 더 아름답게 보정되기를 소망하는 동화 속 메시지를 담은 환경보호 관련 책읽기, 1회용품과 쓰레기 줄이기 체험, 친환경 세제 만들기, 스웨덴의 아동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하는 환경보호 메시지 캠페인 등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아동 놀 권리를 점목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세종아동보호센터 최승인 소장은 "평범했던 스웨덴 한 소녀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1년 만에 UN 기후회의를 통해 전세계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행동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다"며 "아동이 참여하는 놀이에 사회적 이슈를 접목시킨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과 관심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다양한 놀이 주제에 대해 아동 놀 권리를 실현을 정착 시키겠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우리/동네

천안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확정

청년의 자립과 권익증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

충남 천안시가 청년의 자립과 권익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세웠다.

천안시가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구본영 시장과 복이영 시의원, 청년활동가들로 구성된 청년위원, 청년업무 담당 부서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청년정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천안시 청년기본조례 제6조에 근거해 천안 지역 청년의 자립과 권익증진 등을 위한 고용확대, 주거·생활안정, 참여기회 확대 등의 청년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청년이 행복한, 희망 가득 천안'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이 활동하는 천안(Active)', '청년이 공감하는 천안(Say)',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천안(Dream)'을 정책 목표로 정하고 전략목표 4개와 교육·일자리, 문화·여가, 주거·복지, 참여·소통 4개 분야 추진전략에 따른 중점추진과제 55개를 마련했다.

교육·일자리 부문에는 대학가 창업거점센터조성, 청년면접장대여사업, 천안시 2030복지센터 운영 등 33개 사업이 담겼으며, 문화·여가 부문에는 대학문화의거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거·복지 부문 사업은 청년취업아파트 조성,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13개이며, 참여·소통 분야 사업은 지역차근형 청년프로그램운영 등 5개가 있다.

그동안 천안시는 이번 계획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잡(JOB)정책그룹'을 구성해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들 통해 청년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기존의 행정 주도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참여, 권리보호, 문화활동 등 청년 문제 전반으로 청년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구본영 시장은 "청년정책은 청년이 제안하고 만들어 실행에 옮겨져야 하는 만큼 이번 기본계획에 청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청년들이 큰 꿈을 갖고 천안에서 계속 정주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민선7기에 일자리 12만개 창출, 청년공공임대주택 640가구 공급, 동남구청사 부지에 대학생 행복기숙사 300실 조성,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학문화의거리 조성, 청소년재단 설립 등 '천안형 청년 뉴딜정책'을 추진하며 청년정책의 큰 틀을 완성하고 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성정건강생활지원센터

홀로 사는 어르신 요리교실 진행

천안시 성정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2일부터 25일까지 영양실습실에서 성정1·2동 홀로 사는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독거어르신 일품요리사 되다' 요리교실을 진행했다.

이날 요리교실에는 성정1, 2동을 담당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방문간호사의 협조로 남자어르신 16명, 여자 어르신 16명이 참여했다. 실습교육은 ▲조리전 안전교육 및 위생교육 ▲올바른 식습관 교육 ▲나트륨줄이기 교육 ▲건강식 삼계탕 만들기 ▲시식하기 등으로 진행됐다.

요리실습에서 어르신들은 영양가 있는 삼계탕을 조리한 뒤 조리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가족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우울감을 해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기도전포상제

청소년 '은장 탐험 활동' 진행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관장 윤여승)은 태조산 공원 일대에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2019년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은장 탐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만9세~만13세(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 청소년이 봉사·자기 계발·신체 단련·탐험 활동 4가지 활동영역에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며,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자기 주도·성장 프로그램이다. 이번 은장 탐험활동에는 청소년 13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등산 활동을 완료하고 올해 은장활동을 하는 참가 청소년들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자연환경 속에서 찾아 도전하면서 달성해 나가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



천안시 북면 행복키움지원단

주거환경개선 청소봉사활동

천안시 북면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정명호)은 25일 홀로 거주하는 잠전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청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북면중앙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로 이뤄졌으며 대상가구는 건강이 좋지 않아 가사활동이 어렵고 집안에 각종 쓰레기와 정리되지 않은 집들로 가득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였다. 이에 북면 행복키움지원단은 방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청소하고 민약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차단 안전센서가 있는 가스레인지로 교체하는 등 정성을 다해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한남시멘트, 목천읍에 기부금 전달 천안시 목천읍에 위치한 한남시멘트(대표 채성석)가 28일 목천읍 행정복지센터(읍장정관희)에 1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천안시, 대규모 청년 일자리 창출 총력 기울여

총 170억 원을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계획

천안시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앞두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정부가 공모한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도비 110억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시비 6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170억 원을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업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쟁력 강화 기업 청년채

용 지원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우수 스타트업 기업 창의인재 청년일자리 플러스 사업이 있다.

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20년 초 150여개 사업 대상 기업을 선정해 350여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시는 28일 두정동 소재 한국기술진흥회 기술교육원에서 천안과 아산지역의 15개 대학과 10

여개 고교 취업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청년 인력풀 네트워크 구축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업 홍보와 청년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미취업 청년이 청년인력풀에 구직 등록을 하면 구인기업에 인력정보가 제공되도록 한국기술진흥회 기술교육원이 미취업 청년 이력 접수·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시는 우수 기업이 사업에 참여해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 채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시로 간담회

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12일 기업 대상 사전 설명회를 열고, 12월 중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고, 내년 1월 사업 대상 기업을 선정해 청년 채용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구본영 시장은 "이번 사업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여 기업 모집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350여명이라는 대규모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동과 무단횡단 및 불법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는 차선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도 충분히 설치해 교통의 안전성을 높였다.

신방통정지구 진입도로(서부대로)와 신흥1길을 연결하는 이번 도로개통으로 신흥마을은 물론 신방동 행정복지센터로의 접근성이 개선돼 도로의 활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 A씨는 "도로 개설이 전에는 신방동사무소에 가려면 대로를 이용해 길게 우회했는데 도로 개설 덕분에 동사무소는 길이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경배 건설도로나과장은 "신흥마을 진입 도로가 개통되면서 신방동 지역 주민들에게 향상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동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사랑의열매 천안시나눔봉사단, 제3회 사랑의 공병나눔 캠페인 개최

공병 2019박스 수거... 판매액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달



제3회 사랑의 공병나눔 캠페인 이 지난 26일 오전 삼릉동에 위치한 사랑의 공병 집하장(대리공병상

사에서 나눔봉사단원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제6회 천안시 청소년댄스동아리경연대회 성료

청소년 댄스공연 등으로 청소년 문화예술 역량개발, 건전한 여가문화지원



제6회 천안시청소년댄스동아리 경연대회 '댄싱 와이(Dancing Y)'가 26일 오후 두정공원에서 청소년과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천안시 청소년수련관(관장 배영호)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청소년

한 청소년 댄스팀들은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으로 프로 댄서 못지않은 수준 높은 열정의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인기 퍼포먼스 댄스팀 '독특크루'의 축하공연과 '먼피플' 댄스팀의 화려한 식전공연으로 볼거리를 더했고, 관객과의 레크리에이션, 즉석이벤트도 다양하게 펼쳐져 푸짐한 선물도 수여했다.

이번 대회 영예의 대상은 청안팀(청수고)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신비팀(고등연고), 우수상은 천울팀(천안공고), 이클립스팀(백석중)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대상 수상한 청안팀의 정보민 양은 "친구들과 대회 인부를 만들고 연습하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 기

천안시, 신방동 신흥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

천안시가 아산시와 경제지역의 신방동 신흥마을 진입도로(중로3-243호) 개설공사를 준공해 마을주민들의 20여년 해묵은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이번 도로 개설은 올해 3월 착공해 10월 준공했으며, 연장 262m 폭원 12m 구간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가로등과 무단횡단 및 불법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는 차선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도 충분히 설치해 교통의 안전성을 높였다.

신방통정지구 진입도로(서부대로)와 신흥1길을 연결하는 이번 도로개통으로 신흥마을은 물론 신방동 행정복지센터로의 접근성이 개선돼 도로의 활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 A씨는 "도로 개설이 전에는 신방동사무소에 가려면 대로를 이용해 길게 우회했는데 도로 개설 덕분에 동사무소는 길이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경배 건설도로나과장은 "신흥마을 진입 도로가 개통되면서 신방동 지역 주민들에게 향상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동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행정착오 사전 예방으로 투명행정 정착

충남 천안시가 28일 시청 통제상황실에서 업무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청백-e 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

2014년부터 운영한 청백-e 시스템은 지방행정과 연관되는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비리나 행정오류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등에게 경보 발령으로 행정착오를 사전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의 실무지원 조한철 부장을 초빙해 시스템의 이용법을 직접 익히보고 자율적 내부통제의 지표별 성과 진단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윤재룡 감사관은 "선진화된 시스템을 적절하게 이용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 한계를 극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동아리, 메이커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활동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수련관 홈페이지(www.youthac)를 참고하거나 전화(수련활동팀 ☎900-0776)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이정복기자

동정

2차 본회의
구본영 천안시장= 29일 오전 10시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

제2차 본회의
인치건 천안시의회의장 = 29일 오전 10시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

천안시, 신방동 신흥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



천안시가 아산시와 경제지역의 신방동 신흥마을 진입도로(중로3-243호) 개설공사를 준공해 마을주민들의 20여년 해묵은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이번 도로 개설은 올해 3월 착공해 10월 준공했으며, 연장 262m 폭원 12m 구간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가로등과 무단횡단 및 불법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는 차선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도 충분히 설치해 교통의 안전성을 높였다.

신방통정지구 진입도로(서부대로)와 신흥1길을 연결하는 이번 도로개통으로 신흥마을은 물론 신방동 행정복지센터로의 접근성이 개선돼 도로의 활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 A씨는 "도로 개설이 전에는 신방동사무소에 가려면 대로를 이용해 길게 우회했는데 도로 개설 덕분에 동사무소는 길이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경배 건설도로나과장은 "신흥마을 진입 도로가 개통되면서 신방동 지역 주민들에게 향상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동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행정착오 사전 예방으로 투명행정 정착

충남 천안시가 28일 시청 통제상황실에서 업무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청백-e 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

2014년부터 운영한 청백-e 시스템은 지방행정과 연관되는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비리나 행정오류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등에게 경보 발령으로 행정착오를 사전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의 실무지원 조한철 부장을 초빙해 시스템의 이용법을 직접 익히보고 자율적 내부통제의 지표별 성과 진단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윤재룡 감사관은 "선진화된 시스템을 적절하게 이용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 한계를 극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청양군, 11월1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청양군(김돈곤)이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규모 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군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토론과 현장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아산시 산불진화 합동시범훈련 실시 아산시는 오는 30일 오후2시부터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산불진화구조 체계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019년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산불진화 시범훈련은 아산시 신청호수공원(치학산)일원에서 실시된다.



벤델의집 20주년 보석같은남자들의 마당극 "벤델이야기"공연 벤델의집이 20주년을 맞이해 지난 26일 우금치 별별마당(대전시 중구 중앙로 122번길 15)에서 "보석같은남자들"의 마당극 "벤델이야기"를 특별 공연했다.



유성구새마을회, 대전 혁신도시 지정축구 기동캠페인 유성구새마을회(회장 임재병)는 대전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지역의 노력으로 유성구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28일 월드컵경기장 앞 유성IC에서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당진폭, 자동안내방송시스템 활용

경찰 정책 및 범죄예방 홍보활동

당진경찰서(서장 한상오)는 관내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아파트 단지 내 자동안내방송 시스템(TTS)을 활용한 경찰 정책 및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동안내방송 시스템(TTS)이란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송출하는 시스템으로 당진 시 절반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주민 4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당진시 주거환경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홍보방안으로 기존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성이 높은 홍보방안이다.

당진=최근수기자

공주소방서, 관내 초등학생 대상 모집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작품 공모

공주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제72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예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작품을 모집한다.

공모전 참가는 공주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작품 접수기간은 11월 20일까지이며, 화재예방의 필요성 등 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4점 크기 종이에 1인 1작품을 공주소방서 화재대책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11월 중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에 대한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며, 그 중 최우수 작품은 도내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에 출품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소방서 화재대책과 ☎041-851-0261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성범기자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3,39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11건을 피해 발생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7.7%로 가장 많았으며, '해지단계' 23.5%, '가입

단계' 17.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구두 약정과 다른 계약 내용, 약정한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이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5.4%, '주요내용 설명·고지 미흡' 11.5% 등의 순이었다.

2015년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가장 큰 폭(83.9%)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연·누락', '통화 품질 불량'은 각각 57.6%, 50.5% 감소했다. 2018년 이동통신 3사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U+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T 296건, SKT 237건 순이었다. 2015년 신청 현황과 비교하

면,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U+가 39.6% 증가한 반면, SKT와 KT는 각각 30.6%,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GU+ '가입·이용·해지단계', SKT·KT '해지단계'에서의 소비자피해가 2015년 대비 증가했다. 2018년 이동통신사의 피해발생 시점별 소비자피해는 LGU+의 경우 '가입·이용·해지단계'에서 모두 2015년 대비 44.0~94.9% 증가했고, KT와 SKT는 '해지단계'에서만 각각 86.0%, 7.0%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감소를 위해 ▲판매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청약철회 관

련 피해 발생시 적극 처리, ▲피해구제 합의를 제고 등 업계의 자율개선 노력을 요청했으며, 주요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등 주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통신 이용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에 앞서 요금제, 약정기간, 약정조건에 따른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것,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매월 요금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라돈측정 서비스 확대 시행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공중주택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주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면서 라돈 간이측정기 19대를 추가 구입하여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세종시는 지난 해 12월부터 라돈 간이측정기 30대를 구입하여 무상 대여해 왔으나, 대여 희망자가 많아 라돈측정기를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동에서 방민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지참하여 측정기를 수령하고 1박 2일 이용 후 반납하면 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는 라돈 측정결과 값이 기준치 이상이 나올 경우, 시에 통보하게 되면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하여 정밀측정을 할 계획이다.

세종=김태선기자

공주시의회 'A' 의원, 만취상태 음주운전 적발

공주시의회 'A' 의원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총격을 주고 갔다.

28일 공주경찰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소속 공주시의회 'A' 의원이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시민에게 목격돼 단속됐다.

공주시의회 'A' 의원은 지난 26일 밤 9시30분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면허취소)의 만취상태로 신관동에서 금강교를 넘어오면서 중

양분리대를 몇차례 가볍게 부딪치자 뒤따르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측정에서 0.2%가 나와 본인에게 채혈의사를 묻자 채혈을 위해 채혈 후 국과수에 보냈다"며 "1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지나해에도 의원중한 명이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었는데 올해 또 음주운전에 적발돼

의원들의 기강해이가 선을 넘고 있다"며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원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걱정을 했다.

한편, 음주운전은 지난 6월 25일부터 '제2운장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로 강화됐다.

공주=정성범기자

충남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 11월 28일 확정

11월 11일~12일 후보자 등록, 13일~27일 선거운동 기간

충남대학교의 제19대 총장임용 후보자 선거가 오는 11월 28일 치러지는 가운데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총장임용후보자선거를 공고했다.

충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김정운)와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8일(월), 제19대 충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를 공고했다. 공고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 및 방법, 접수 장소, 선거운동방법, 투표시간(1차, 2차, 3차), 투표표소의 명칭과 장소 등이 명시됐다.

공고에 따르면 선거일 11월 28일(목) 오전 11시(1차), 오후 2시(2차), 오후 4시(3차)로 진행되며, 장소는 대덕캠퍼스 정심국극제문화회관 대덕홀, 보은캠퍼스 의과대학 진료실기교육센터 현관이다. 투표 방식은 종이투표와 온라인투표이 동등신단말기와 PC를 이용한 투표가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 기간선거 개시일 2

이정복기자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탄방중학교 생존수영수업 지원

수상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 향상 위한 수영 수업 지원



대전학생해양수련원(원장 표남근)은 학생들에게 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수상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대전탄방중 생존수영수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월 28일(월)부터 12월 6일(금)까지 대전탄방중 전교생(1,237명) 대상으로 6주간 운영되는 생존수영수업은 대전탄방중의 탄방마루수영장에서 이뤄진다.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교과담당교사의 임직지도 아래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대전학생

해양수련원 전문 지도요원 6명, 남자 3명, 여자 3명)이 수업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이 수업에서는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포함한 수상안전교육과 생존수영의 기본 방법인 뜨기 방법, 잠수 방법 등을 익히게 되며, 자기 구조 방법과 구조장비를 활용한 타인 구조 방법에 이르기까지 생존수영 프로그램의 모든 절차를 배우게 된다.

표남근 원장은 "생존수영이 우리 교육청 「학생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정책」의 하나인 만큼 생존수영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대전 유일의 해양체험활동 운영 기관으로서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홍성군, 가을철 '산불ZERO' 위해 산불방지 총력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홍성군은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청 및 11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산불상황 관리를 위해, 산림복지과에 산불방지영상위탁관리 시스템 및

산불감시카메라 7개소, 무선국시설 4개소를 활용한 산불감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진화차(13대), 산불기계화 시스템(2대), 산불진화임차헬기(1대) 등의 진화장비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38명), 산불감시원(44명) 등을 배치해 신속한 초동진화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등산로 입구와 산불취약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에도 나선다.

영농부산물 등 각종 소각행위를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불철 이전에 마을별 공동으로 계획적인 소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는 각종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산불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군내 산불위험지역은 철저한 감시를 통한 산불발생 사전 예방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려,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도빌딩 7층

서산소방서, 3W-119신고요령 홍보

뇌심혈관질환자 사망 및 급성 심정지 발생의 증가 예상 따라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11월~12월 사이 뇌심혈관 질환자의 사망 및 급성 심정지 발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심폐소생술 행동요령이 담긴 '3W-119신고요령' 홍보에 나선다.

다 신고인의 침착하고 정확한 119신고가 중요하다.

'3W-119'는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행동요령으로 '3W'는 "Where-위치를 정확하게, What-환자 상태를 어떻게, What-환자 상태를 어떻게 하든 서 급급차를 기다려 주세요"의 약자로 심정지 환자발생 시 119 신고요령이고, '119'는 "▲(1)초에 2번 두 손가락을 손바닥을 가슴 중앙에 대고, ▲(1)일직선이 되도록 팔을 펴서 5cm 이상 길이로 압박, ▲(9)급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주세요"의 약자로 심폐소생술 실시요령을 나타낸다.

심정지 환자는 4~5분 내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혈액 공급이 끊겨 뇌 손상이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서산=김정환기자

아산시자원봉사센터 '줄이고, 멈추고, 살피고'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캠페인



아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대경)는 지난 26일, 아산시의 버스터미널 일대, 중앙도서관, ULCTY버스정류장 등에서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한 것으로 '줄이고, 멈추고, 살피고' 배려운전 3원칙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캠페인은 앞으로 11월까지 총 2회에 걸쳐 아산고등학교 제46대 학생회 임원진들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캠페인 참여 학생들은 교통안전 줄음운전 예방, 음주운전 근절,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안전속도 5030 등 4대 테마를 알리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아산

시민 함께 실천해요' 스티커 부착 안내와 홍보물을 배부하며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아산고등학교 권기현 선생님은 "얼마 전 아산시 스크론펠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배려운전 3원칙으로 시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자원봉사센터 김대경 센터장은 "주민생활환경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교통사고 제로화 캠페인에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를 만들고자 안양리액션 캠페인과 연계했으며 일반시민들의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 방안 마련

대전시교육청, 유관기관 신속한 협조체계 마련... 학교폭력 적극 대처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대전지역 집단폭행 동영상 유포 등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가족과 시민들에게 우려를 주고 있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은 사후 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학

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 및 친구사랑 3운동 등을 지원해 왔으나,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사안 발생 시 신고-접수-조사-대처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현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최근 학교폭이나 SNS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첫째, 학교폭력 현장 컨설팅지원단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에 대한 장학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공정한 사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학교와 교육청, 경찰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리상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시스템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위로레슨, 위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상담 및 치유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기관

을 적극 활용하며, 특히 집단폭력, 디지털 폭력,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권기원 과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공정한 사안처리, 피해학생 보호·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소아암재단 중부지부, 오월드 꽃축제 진행 (재)한국소아암재단 중부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오월드에서 대전도시공사, 국제로터리 3680지구백제로다리클럽 및 이룸대문사람들의 후원으로 소아암백혈병 어린이를 위한 오월드꽃축제를 진행했다.



“선후배가 이끄는 공교육의 성공신화”

공주사대부고, 동문과의 진로 멘토링 실시

공주사대부고(교장 백남용) 2학년 177명의 학생들은 지난 10월 23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로 캠프 '나를 만나다'에 참여해 자신의 희망 계열에 따라 다양한 기관 및 시설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유명 인사들이 많이 배출해온 전통 있는 학교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선배들과의 만남도 기획되었는데, 둘째 날인 24일에는 학술'정치'경제'역사'문화'의학'공학'방송'예술'교육' 등 2개 직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선배 동문들(43명)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실 있고 알찬 진로 탐색의 장을 마련했다.

진로 탐색 중인 학생들에게는 각 분야에서 맹활약하는 선배들의 현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오후로 4회째 진행되고 있는 진로 멘토링은 '나를 만나다'란 주제로 시작되었으며, '사진 그룹핑·동문과의 대화·사후 멘토링'의 과정을 거쳤다.

희망하는 진로 분야가 같은 학생들이 그룹을 조직하고 SNS를 통해 선배와 사전 교류를 진행해 첫 만남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공주=정상범기자

먼저, 서해안 복단 백령도의 초등학교 2학년생이 독도 수비대 군인들에게 독도를 잘 지켜달라는 부탁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독도수비대장에게서 수비대 사진과 답장을 받는 훈훈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서 일본 어부가 독도에서 감치잡이를 독점하려고 남획하다 결국 감치를 벌종시키고, 독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보며 '잔인하다'고 표현했다.

다음으로 독도를 색칠하고 귀여운 강치도 보이도록 '종이컵 독도'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음악 시간에는 우리 민요 아리랑이 여러 상황에서 불러진다는 점에 대해 배웠는데, 독도와 관련된 노래 '홀로 아리랑'도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대전=최근수기자

당진 유곡초, 독도의 날 계기교육 실시

학생들의 마음속 독도에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당진 유곡초등학교(교장 광승근)는 지난 25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체험활동시간에 독도의 날 계기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성환도서관 등 19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행정부 재난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위원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전문 강사를 겸하고 있는 김영철 수석전문위원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의의"에 대한 직인 연수로 시작됐으며, 재난상황부여를 통한 임무와 역할을 발표/토의하는 토론훈련, 유치원 재난대응, 신속 공사장 붕괴사고, 감염병 재난대응, 진로체험학습 버스사고 등의 가상 상황에 대하여 훈련이 진행된다.

현장훈련으로는 29일 시범학원을 대상으로 화재대피 훈련, 30일 불시비상소집 훈련, 민방공(지진)대피훈련, 31일 불시상황보고 훈련, 11월 1일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체험형 심폐소생술 훈련을 천안서북소방서 현장대응단 협조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경진 교육장은 "평소부터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철차와 조치 등 관련사항을 숙지한다면 재난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정복기자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천안교육지원청, 195개 기관 대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진)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성환도서관 등 19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행정부 재난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위원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전문 강사를 겸하고 있는 김영철 수석전문위원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의의"에 대한 직인 연수로 시작됐으며, 재난상황부여를 통한 임무와 역할을 발표/토의하는 토론훈련, 유치원 재난대응, 신속 공사장 붕괴사고, 감염병 재난대응, 진로체험학습 버스사고 등의 가상 상황에 대하여 훈련이 진행된다.

현장훈련으로는 29일 시범학원을 대상으로 화재대피 훈련, 30일 불시비상소집 훈련, 민방공(지진)대피훈련, 31일 불시상황보고 훈련, 11월 1일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체험형 심폐소생술 훈련을 천안서북소방서 현장대응단 협조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경진 교육장은 "평소부터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철차와 조치 등 관련사항을 숙지한다면 재난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정복기자

‘마음을 전해요’ 손편지 쓰기 공모전 시상식

세종교육청, 학생·교직원 일반시민까지 총 709작품 접수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된 '세종교육 '마음을 전해요' 손편지 쓰기 공모전' 시상식을 세종시교육청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하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라는 주제로 학생부터 교직원, 일반시민까지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졌다.

초등학생 354편, 중학생 282편, 고등학생 28편, 교직원 21편, 일반시민 24편 총 709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엄정한 심사를 통해 으뜸상 5개, 버금상 10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날 시상식은 수상자들의 편지 낭독을 시작해서 시상 후 기념촬영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으뜸상으로 선정된 김현진 교사(소담초등학교)는 투병하고 있는 아이의 학부

충남교육청, 교육시설 화재사고 대응능력 증진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본격 돌입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첫날인 28일 상황실을 개소하고 설명회를 시작으로 5일간의 훈련에 본격 돌입했다.

안전한국훈련은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도내 1280개 교육기관 모두가 참여해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한 토론 훈련과 현장훈련,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실시한다.

충남교육청은 훈련 목표를 체현위주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역량 강화와 안전

문화 조성으로 정하고 ▲학교 공사장 화재사고 대응훈련 ▲감염병 대응훈련 ▲진로체험 안전사고 대응훈련 ▲유치원 화재사고 대응훈련 등의 토론훈련을 실시해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완·발굴한다.

또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별 학원 화재대피 훈련 ▲전 교육기관 지진대피 훈련 ▲불시 화재대피훈련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훈련 ▲유치원 화재대피 훈련 ▲도민참여형 심폐소생술 훈련 등 현장 훈련을 실시해 교육구성원들이 대피요령 등을 습득하고 체험하여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인다.

각급 학교는 훈련 기간을 '학교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안전실천 서약, 재난안전 콘서트, 119체험 발대식, 안전 OX 퀴즈 대회, 안전대피로 그리기, 안전즐거짓기, 안전 등교의 날 등 다양한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지진·화재 대피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김정환기자

시·청각장애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

아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 상담 및 지원능력 신장 목적



아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교육장 조기성)는 지난 25일, 아산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시·청각장애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시·청각장애 특성화지원센터로서 시·청각장애 학생 교육의 전문성 향상과 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의 시·청각장애 학생 상담 및 지원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충남 도내 시·청각장애 학생 담당교사 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수 내용은 김대식 대전맹학교 교사의 '시각장애 학생 지도의 실제'와 이지은 (사)한국난청인교육협회 전문강사의 '청각장애 학생의 이해와 교육환경 구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시·청각장애 학생들의 지도 방법을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연수로 진행되었으며, 시각장애 학생들의 지도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보청기 사용, 점자 지도 등의 교육적 접근과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법, 수화 사용, 인공외우, 보청기 사용법, FM수신기 활용 방법 등의 실무적 체험을 통해 연수에 참여한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 됐다.

아산=리량주기자

학생창업자 육성 및 창업문화 확산

한국영산대학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OU 체결



한국영산대학교(총장 유재원)가 지난 25일 대학 본관 9층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광노)와 학생창업자 육성 및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와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생창업자 발굴 및 육성, 산학연관협력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창업문화 확산과 인재 양성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두 기관의 상호협력 주요 내용은 ▲우수창업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공동 노력, ▲창업멘토 풀 구축 및 컨설팅 실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의한 산학연관협력 협의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랑 책이랑’ 가족 체험 연수 실시

금산교육지원청, 초등학생과 학부모 40여명 대상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은 10월 26일 초등학생과 학부모 40여 명을 대상으로 부어 송정그림책 마을에서 '우리랑 책이랑' 가족체험연수를 실시하였다.

송정그림책마을은 70세~80세의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 23명이 6개월 동안 그림그리는 방법을 배워 23권의 그림책을 만들었으며, 그림책 읽어주기와 인형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책 정거장에서 이장님이 들려주는 마을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길잡이 어르신과 이야기 산책하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들려주는 그림책 읽어주는 시간과 인형극 관람까지 알찬 시간을 보냈다.

금산중앙초등학교 김00 학부모는 "송정마을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만든 그림책을 작가 어르신들이 직접 읽어 주시는 데,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긍정적인 삶을 느낄 수 있어서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다."라며 "무엇보다 가족들이 함께 주말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3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만 3000명 신청

道, 천안·아산 약 1만명 신청...3분기 지원금 11월 말 지급 예정

충남도는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접수를 마감한 결과, 2만 30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3분기부터 천안·아산시가 참여함에 따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됐다. 천안과 아산지역 소상공인 사업주의 많은 관심으로 3분기에는 약 1만 명이

추가로 접수됐다.

도는 1·2분기 자동 신청된 사업장을 포함한 2만 3000여명에 대한 심사를 11월 중 마무리하고, 각 시장·군수 명의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된다.

도는 지난 1·2분기 13개 시·군 사

업장 4755개와 근로자 1만 2840명에게 총 63억 9000만원을 지원했다.

신동현 도 경제통상실장은 "천안·아산시 소상공인 영세사업주의 많은 관심으로 3분기 신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보완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에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롯데마트 노은점, 할로윈 데이

롯데마트 노은점 직원들이 31일 할로윈 데이를 맞아 할로윈 스낵과 파티용품 선보이고 있다. 할로윈 이미지로 제작해 특별 한정판으로 내놓은 초콜릿, 젤리, 과자 등 먹거리와 할로윈 파티를 위한 망토, 모자, 가방 등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한다.

중기중앙회 지역별 순회 간담회

외국인력제도 개선 위해 실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인상,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국민연금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 청취 및 애로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금년 4분기에는 ▲경기지역(31일) ▲대구·경북지역(11월 8일) ▲경남지역(13일) ▲강원지역(27일)을 순회하며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의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및 내국인근로자 고용 기피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유통업체, 제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지만 충분한 외국인력이 공급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뿌리산업 중소기업도 참여해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외국인근로자 수급기간 연장(현행 3개월 → 최소 1년 이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한타 후원 아트라스비엑스 모터스포츠 'CJ 슈퍼레이스' 3년 연속 제패

한국타이어 장착 차량, 드라이버 1~3위 · 전 라운드 1위 독점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 엔테크놀로지(대표이사 조현범, 이하 한국타이어)가 후원하는 '아트라스비엑스 모터스포츠'와 소속 드라이버 김종겸 선수가 '2019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ASA 6000 클래스' 팀 챔피언십과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1위를 기록,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더블 타이틀을 차지하며 한국타이어의 압도적인

기술력 우위를 입증했다.

아트라스비엑스 모터스포츠는 김종겸 선수가 드라이버 챔피언십 포인트 112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조항우 선수가 110점으로 2위,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가 83점으로 6위에 오르는 등 모든 선수들이 고르게 상위권을 올라 '팀 챔피언십' 부문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다.

한국타이어는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대회를 통해 벌여진 타이어 제조사 간 기술력 승부에서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아트라스비엑스 모터스포츠가 팀 챔피언십에 올랐을 뿐 아니라, 김종겸 선수와 조항우 선수에 이어 '별가스테이팅'의 김제현 선수까지 한국타이어를 장착한 3명의 선수가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 1~3위에 나란히 올랐다.

또한 올해 CJ 슈퍼레이스 ASA 6000 클래스에서는 1라운드부터 9라운드까지 전 라운드 승부에서 모든 우승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한국타이어를 장착하는 이례적인 기록이 수립됐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독일 투어링카 마스터즈(DTM)', 'F3 아메리카(F3 Americas)', '포뮬러 르노 유로컵(Formula Renault Eurocup)' 등 유수의 글로벌 모터스포츠 대회에 레이싱 타이어를 공급하거나 참가팀을 후원하며 글로벌 Top Tier 기업으로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후원 팀들에 전략 회의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모터스포츠 트레일러를 특별 제작하는 등 모터스포츠 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서산버드랜드 철새기행전 '성황'

다채로운 행사로 관광객의 높은 만족도 이끌어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천수만에 도래하는 수많은 철새들과 함께한 2019 서산버드랜드 철새기행전이 지난 26일과 27일에 양일간에 서산버드랜드에서 진행된 가운데 2018년에 비해 관광객의 수가 50%이상 증가하며 성료됐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에 따르면, 금년도 철새기행전은 천수만의 철새를 관찰하는 탐조투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 체험프로그램과 공예프로그램, 문화행사 등 34종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으며, 행사 이틀간 3,155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해 서산시민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가족단위의 관광객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서산버드랜드 철새기행전이 나아갈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청명하고 따뜻한 날씨로 철새기행전의 메인행사인 탐조투어와 천수만탐조

투어, 소달구지 체험행사가 매진행렬을 이뤘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기는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행사에 참여했던 관광객은 "천수만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운 체험행사, 볼거리와 지역주민들의 손길이 닿은 음식 등으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몇 년 만에 다시 행사장을 방문했는데 과거에 비해 체험과 즐길거리가 많아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걸 보니 내년에도 다시 방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서산버드랜드의 철새기행전은 종료됐으나, 주말 탐조투어는 11월 24일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금년도 행사의 질적인 점과 부족했던 점을 면밀히 파악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철새기행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산=김경한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 태동빌딩 7층

청양군 '다문화 어울림 한마음가족축제' 성료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26일 충남도립대학교 해오름관에서 김돈곤 청양군수,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다문화 가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다문화 어울림 한마음 가족축제를 열고, 교류와 배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11개 나라 국기 입장, 표창대 수여, 이종언 어 말하기 발표, 다문화가정 자녀로 구성된 '리틀그린나래'의 치어리딩 공연, 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은 어울림팀과 한마음팀의 거름으로 진행된 체육대회를 통해 한국사회 발전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김돈곤 군수는 "다문화 축제를 통해 청양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어 다행"이라며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족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군내 다문화가정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당진의 먹거리 생산·가공 여건 현주소

당진 농축산물 생산액 충남도내 10% 비중

당진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생산액은 2016년 기준 5065억 원으로, 충남도내 상위 3위에 해당하는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역 여건에 적합한 푸드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지난 21일에는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내 농축산물 생산액은 부어, 논산, 당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당진의 경우 쌀과 서류를 포함한 식량작물 생산액이 전체 농축산물 생산액의 절반 수준인 2,483억 원으로 충남도내에서 가장 많은 생산규모를 보였다.

당진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품목별 자급 규모를 추정할 결과에서는 쌀과 서류, 조미채소, 업체류, 축산 등이 초과 생산된 반면 맥류와 잡곡류, 과채류, 사과와 배를 제외한 과실류의 지역 내 공급은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당진의 먹거리 유통·소비 여건 분석 자료에서는 당진의 연평균 식품 수요 추정 결과 연간 식품 수요량은 7만 6412톤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공공급식 시장 추정 결과 연간 소비 추정액

은 983억 원, 급식인원은 7만2936명으로 당진시 전체 인구의 42.2%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식품의 양과 종류가 충분한지 부족하지는 조사하는 식품안전성 확보 수준은 당진의 경우 2016년 기준 98.9%로, 전국 평균(95.8%) 및 충남 평균(95.3%)보다 높게 나타났다.

당진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 육성과 농가 조직화, 가공·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계획 수립과 연계해 지역 푸드 플랜 거버넌스를 발족키로 하고 이달 안에 분과별 푸드 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해 푸드 플랜 분야에 대한 토론회와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시민 참여형 푸드 플랜 구축에 기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진시는 분석 자료를 토대로 공공 기관별 급식 현황을 조사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공공급식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에 적합한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모색한다.

당진=최근수기자

KB오토텍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후석공조시스템 수주

KB그룹(부회장 박효상) 자동차부품 부문의 글로벌 공조전문기업인 KB오토텍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 구메본부로부터 향후 생산 예정인 전기차에 장착될 후석공조시스템에 대한 수주 계약이 최근 확정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후석공조시스템은 메르세데스-벤츠의 프레스기 전기차 EQ 브랜드에 장착되어 후석의 쾌적한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해 독립적으로 기온을 제어하는 장치로 KB오토텍 40여년의 축적된 공조기술력을 보여주는 제품이다.

금번 후석공조시스템은 총 300여억원의 공급 규모로 2022년부터 2029년까지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양산하는 전기차 EQ SUV 모델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수주 계약과 관련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KOTRA 무역역관의 GP(Global Partnering)센터는 KB오토텍이 메르세데스-벤츠의 프로젝트

수주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센터 입주에 도움을 주고 KOTRA의 현지 사정에 밝은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금번 프로젝트 수주에 큰 도움이 됐다.

KB오토텍 관계자는 "이번 수주 성공을 통해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로부터 타 프로젝트의 수주 기회를 열고 다른 독일 완성차 업체와의 비즈니스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더불어 KB그룹내 유럽지역 계열사인 KDK오토모티브와 협력을 통해 유럽 현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KB오토텍은 종업원 550여명, 연 매출 2500억원 내외의 글로벌 공조전문 중견기업으로 ㈜만도의 전신인 만도기계(주)의 차량공조사업본부로 시작해 2009년 12월 갑을역관의 GP(Global Partnering)센터는 KB오토텍이 메르세데스-벤츠의 프로젝트



교환기 제품 생산공급을 주력 사업으로 국내 및 해외 자동차업체와 거래 관계에 있고, 승용/상용 자동차, 버스는 물론 중장비 등에도 관련 부품을 공급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아산=리광주기자

우리/동/네

거대한 모래섬 '장안사퇴' 비경 적극 홍보

가세로 태안군수 등 50여 명 '장안사퇴' 방문... 풍물단·승무 공연 펼쳐져



태안군이 학암포 지역 관광자원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공연단 등 50여 명이 원북면 학암포 앞바다의 거대한 모래섬인 '장안사퇴'를 찾았다.

태안 '장안사퇴'는 대조기에만 나타나는 거대한 모래섬으로 주위 바다 색깔과 그 모습이 매우 신비롭고 아름다우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곳이다.

이날 방문행사는 가 군수 인사말에 이어 원북·이원풍물단 길놀이, 심화영 승무보존회 이애리 씨의 승무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태안만의 이색적인 지형인 '장안사퇴'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태안만의 특색있는 자연경관을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맞춰가며 관광 자원으로 개발해, '서해안 최고의 휴양도시 태안'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대한 모래 퇴적지역인 '장안사퇴'는 천연기념물 가마우지 등 조류의 먹이활동 지역이며 꽃게·넙치 등 해양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약 12km에 걸쳐 펼쳐진 광활한 '장안사퇴'는 태안의 해수욕장과 시구의 모래 공원이 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안사퇴'가 해일을 막아준다고 구전되고 있다.

태안=김정한기자



당진에서 우리 아빠 자랑대회 열려

아이들에게 최고의 우리 아빠는?

당진에서 지난 27일 아이들이 마음껏 아빠를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색적이면서도 특별한 자랑대회가 열렸다.

우리 아빠 자랑대회는 육아에 참여하는 당찬 당진 아빠들을 응원하고 일·생활 균형과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위해 당진시가 개최했으며, 27일 대회 본선에는 20팀의 아이들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행복한 가족상을 놓고 발표에 참여했다.

대회 결과 한미트(탑동초 6학년) 외 3명의 남매가 발표에 나선 다둥이 가족이 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탑동초 3학년 표서현 학생이 금상을, 면천초 6학년 강은하 학생과 순성초 3학년 이소담 학생이 은상을, 이화진·이혜진 자매와 원당중 1학년 조정준 학생, 당진초 2학년 김수민 학생이 각각 동상을 수상했으며 나머지 가족들은 행복한 가족상을 수상했다.

'우리들의 척척박사 선생님, 우리 아빠!'를 주제로 아빠를 자랑해 대상을 수상한 다둥이 남매들은 군대에서 중위로 예편해 때론 엄하기도 하지만 집안 정리정돈을 솔선수범하고 가족여행과 자주 가며 맛있는 요리를 해 주는 아빠의 장점을 재치 있게 발표했다.

대상을 수상한 4남매뿐만 아니라 본선 무대에 오른 학생들 모두 목소리를 높여가며 우리 아빠가 최고의 이유를 설명했고, 순위와 상관없이 아빠 자랑 대회에 참가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다.

특히 좋은 직업과 사회적 지위, 연봉 같은 흔히 어른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요리해주는 아빠, 같이 잘 놀아주는 아빠,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아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빠가 아이들에게는 슈퍼맨이자 최고의 아빠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대회였다.

당진=최근수기자

동정 안전대책회의

오세현 아산시장은 29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산불재난 안전대책회의에 참석.

안전한국 현장 훈련

김홍장 당진시장은 29일 오전 11시 당진시청 해나루 홀에서 열리는 지속가능발전 청소년 프로젝트 상호 협력 협약식에 참석, 오후 3시 당진화력에서 열리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 훈련에 참석.

현장군수실

가세로 태안군수는 29일 오후 2시 고남면사무소에서 열리는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군수실'에 참석.

치안협의회

김돈곤 청양군수는 29일 오전 10시 청양경찰서에서 열리는 2019년 지역 치안협의 회에 참석.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일자리사례 선정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 '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일자리 사례' 공모에서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이 선정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월 아산시로 부터 '참여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직업생활에 따른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개발 및 일자리 발굴을 위해 시 장애인복지팀(팀장 고분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연계 노력을 기울인 결과, 9개소의 신규 배치기관을 발굴함으로써 전년보다 13명의 중증장애인이 새롭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장애인복지관의 우수일자리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내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아산우체국 우편물 분류작업을 비롯하여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 고객안내, 종합사회복지관의 급식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및 사무보조 등 다양한 직무개발 및 일자리 배치기관 발굴,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일 반고용으로 취업 연계 사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19년 신중년 활동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이 취업 후 작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지도원 배치 운영 사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사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는 물론, 우수사례가 향후 타 지자체 및 일자리 수행기관에 모범적인 사례로 장애인일자리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의 무고용률 등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041-545-77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면천읍성에 보부상들이 찾아온다

당진시, 오는 11월 2일 '보부상로드'와 '고래마켓' 선보여

조선시대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군수로 지낸 충남 당진 면천읍성에 오는 11월 2일 보부상들이 찾아온다. 충남 문화재단이 면천읍성 활성화를 위해 2019 충남 고유 브랜드 기획사업인 '보부상로드'와 보부상 활성화 사업인 '고래(古來)마켓'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보부상 활성화 사업은 공주와 청양, 부여 등 충남 각 지역에서 활성화를 위해 홍산 보부상 공연과 버스킹,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충남 문화재단의 연중 사업이다.

11월 2일 면천읍성 장청 앞마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홍산 보부상 길놀이를 시작으로 청년 버스킹이 이어지며, 충남 보부상단 소개와 고래마켓이 면천읍성 내부에서 보부상 전시 프로그램으로 상시 운영된다.

또한 보부상이 신년 신발을 신어 보고 장사를 해볼 수 있는 보부상 체험 프로그램도 면천읍성 내 한옥에서 진행한다.

한편 충청남도 지정 기념물 제91호인 면천읍성은 조선 세종 때인 1439년(세종 21년) 왜구 방어를 위



한 읍성 축조 계획에 의해 건설된 평지성이다.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이곳은 최근 조선시대 판공사실명

태안=김정한기자

아산시 긴급복지지원대상 위기가구 발굴·지원 '총력'



아산시는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도움을 주는 긴급복

지지원제도 홍보 및 위기 가구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가구 구성원의 중한 질병 발생, 가정폭력, 화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단기간 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등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올해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재산으로 일반재산 1억 1천 8백만 원 이하(중소도시의 경우,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9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1,822가구 1,198,835,460원을 지원하였고 또

한 최근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건을 계기로 9월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간 추진 중인 고위험위기가구실

태조시를 통해 위험이 예측되는 가구 1,710가구의 어려움을 청취하여 대상 가구에 긴급복지제도 등 복지 서비스연계에 집중하고 있다.

김성호 사회복지과장은 "동절기를 맞아 사회복지과 행복키움지원팀 및 17개 읍면동 복지팀은 제도 홍보와 위기가구 발굴에 행정력을 기울여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행복키움지원팀 및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신청 가능하며,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통해서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식품접객업소 점검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건강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군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팀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이 함께 진행하며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위생적 식품조리법, 올바른 프라이팬 사용법, 영업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을 살피고, 영업자가 현장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자율점검표를 배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전한 외식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점검업소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청양=정성범 기자



다목적육묘장 공급사업 평가

청양농업기술센터, 칼라탄·칼라킹 등 5개 품종 선정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는 지난 25일 다목적육묘장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육묘 공급사업을 평가하고 내년 육묘품종을 선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10월 초 각 마을대표와 고추배추 재배농가 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고추모종 품종선정 및 공급가격, 배 배비육묘, 배추모종 공급가격을 결정했다.

내년 고추 품종은 칼라탄, 칼라킹, PR케이스타, 빅스타, 청양고추 등 5개 품종이 선정됐다.

내년 고추모종 공급가격은 올해와 같이 일반모종 100원, 집중모종 200원으로 결정했으며, 배 육묘상자와 배추모종 가격도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자가 육묘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우량모종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 기자

태안군 '사랑의 반찬' 봉사

자원봉사센터, 저소득층·조손·장애인 등 60명 대상

태안군 자원봉사센터가 결식우려가 있는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태안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정일)는 지난달부터 올해 12월까지 학교교이 추천한 관내 저소득층, 조손·장애인·한부모 가정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주회 마린반찬을 준비해, 관내 봉사자 10명을 통해 대상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반찬나눔 봉사를 통해 집에서 밥을 챙겨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11월까지 보건의료원 중증 우울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원예힐링 강의 및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마음챙김 가드닝 봉사'를 박주연 강사의 무료봉사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계량측정의 날 국무총리 기관표창

부여군, 원산지 단속·병행 등 공로 인정받아 지자체로서 전국 최초 수상 쾌거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49회 계량측정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계량측정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시상식은 범정부계량 관리체계 선진화와 계량측정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일반 국민에게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되었다.

부여군에서는 그동안 계량측정 분야의 사각지대인 석유 일반판매소의 주유계량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정기검정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인들의 계량측정 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원산지 단속과 병행한 계량점검·홍보 활동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광범위한 계량측정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량측정 분야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량측정의 날'은 세종대왕이 계량체계를 확립한 1446년 10월 26일을 기념해 1970년 제정됐다.

부여=김성구기자



을 통해 정기검정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인들의 계량측정 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원산지 단속과 병행한 계량점검·홍보 활동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광범위한 계량측정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량측정 분야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량측정의 날'은 세종대왕이 계량체계를 확립한 1446년 10월 26일을 기념해 1970년 제정됐다.

부여=김성구기자

통정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최홍목 계룡시장= 29일 오후 2시 계룡 시민체육관에서 열리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에 참석.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노박래 서천군수= 29일 오전 10시 서천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충남장애인체육대회 1차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 오후 2시 서천종합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서천읍 옛사진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 오후 4시 서천군청 상강실에서 열리는 서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참석.

위령제

박정현 부여군수= 오전 11시 영명공원에서 열리는 자유총연맹 위령제에 참석.

논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논산시시장 황명선(가)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용사유가 발생한 2,495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받는다.

이전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비교를 통해 조사, 산정한 후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지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 검토 후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오는 12월 27일까지 최종 결정해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041-746-56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김태선기자

THE 우수이용업소 BEST

부여군, 굿뜨래알밤축제·제16회 국화전시회 성황

부여군 공남지 서동공원에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제14회 굿뜨래 알밤축제와 제16회 국화전시회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진 가운데 성황리 열렸다. 굿뜨래 알밤축제에서는 군민 노래자랑과 최고 품질의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이 큰 호응을 얻었고, 국화전시회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와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형상화 한 국화 조형을 작품이 눈길을 모았다.

서천군 제39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거행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25일, 서천중학교에 위치한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탑 광장에서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제39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거행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서천군지회(지회장 김종문) 주관으로 열린 이번 위령제는 노박래 군수를 비롯한 자유수호 희생자 유가족 및 자유총연맹 회원, 기관·단체장, 학생,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수호 희생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높은 뜻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자유수호 희생

자에 대한 묵념, 종교의식, 추념사, 추도사, 헌사, 조시 낭독,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추도사를 통해 "숭고한 희생의 가치를 계승하여 이 땅에 깊이깊이 자유와 평화의 넘치기를 기원한다"며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모든 보훈 가족의 아픔을 다 함께 나누어 화합의 새 역사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는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외치며 공산주의에 항거하다 서천등기소와 대전행무소 등지에서 참혹하게 학살당한 500여 위령의 영령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사실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매년 거행되고 있다.

공중보건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계룡시, 111개소 대상, 위생수준·서비스질 평가

계룡시는 11월 8일까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2019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공무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관내 등록된 이용업 9개소, 미용업(일반, 피부, 손발톱 등) 102개소, 총 111개소를 방문해 일반현황, 법적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40여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최우수업소는 녹색등급, 우수업소는 황색등급, 일반관리 대상업소는 백색등급이 각각 부여된다.

녹색등급을 받은 업소 중 관할영업소 수의 10% 범위 내에서 베스트업소를 선정하고 베스트업소에는 "THE BEST" 현판 부착, 물품지원 및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가 영업자의 자발적 개선의지를 다지고 공중위생영업소의 서비스 제고 및 시민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릴레이 시민아카데미 세번째 주자 '로봇공학자 데니스홍'

10월 30일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 강연

계룡시는 '2019 시민아카데미' 릴레이의 세 번째 주자로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이 바통을 이어받아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9 시민아카데미는 명사초청 및 마을교육공동체사업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시민의 지식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역량강화, 평생학습 지원확대를 위해 계획됐다.

지난 5월 16일 조승연 작가의 첫 강연으로 시작한 시민아카데미는 10월 22일 김영일 교수가 강연을 진행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오는 12월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30일 오후 7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강당에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흥미로운 로봇기술과 함께 꿈과 도전을 위한 열정에 대해 강의한다.

강연을 맡은 데니스 홍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기계항공공학 과 교수이자 로봇매커니즘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미국 '젊은 과학자상', 과학을 뒤흔드는 젊은 천재 10인에 선정된 바 있는 석학이다.

특히 2011년 세계최초 시각장애

인용 자동차를 개발하고 2011년~2015년 국제 로봇 축구대회인 로보컵에서 5년 연속 우승을 하며 세계적인 로봇공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데니스 홍은 최고 의 로봇공학자가 되기까지 노력과 열정을 생생히 들려주고 미래 인재에 필요한 기반한 상상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방법 등을 제시해 줄 예정이다.

강연은 계룡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당일 오후 6시부터 현장에서 1인 최대 2매에 한해 선착순으로 티켓을 배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자치행정과 교육협력팀(042-840-213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릴레이 시민아카데미는 오는 11월 20일 서재걸 박사가 '건강도 재능이다', 12월 3일 정영을 작가가 '아름다운 공존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서천군, 대형 화재·붕괴 복합재난 대응 훈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군민의 재난대처 능력 향상과 기관 간 협력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 및 가능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훈련으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훈련 일정은 ▲ 1일 차 지진으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붕괴 토론회 ▲ 2일 차 문화회 화재 대응훈련(이상재 생가) ▲ 3일 차 군 청사 화재 대피훈련, 지진대피훈련(봄의 마을 등) ▲ 4일 차 주민 참여형 대피훈련(서천특화시장, 서해병원) ▲ 5일 차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붕괴 현장훈련(국립해양생물자원관)으로 진행된다.

1일 차인 28일에는 지진으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화재·붕괴에 따른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박래 군수의 주재로 서천군 10개 협업부서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천교육지원청, 서천경찰서, 서천소방서, 육군제8361부대 1대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KT 등 관계 기관 포함 23명이 참석해 서천군 일대 진도 4.7 지진 발생으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및 붕괴사고를 가상 상황으로 설정하고, 기관별 조치사항을 발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을 펼치며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 및 실천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노박래 군수는 "지진, 화재 등 각종 유형의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9년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한다"며 "이번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전한 서천을 위해 재난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재난 발생 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시행

논산시, 65세 이상·임산부·6개월~만12세 어린이 대상

논산시시장 황명선(가)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1954. 12. 31. 이전 출생자) 및 어린이(2007. 1. 1~2019. 8. 31. 출생자), 취약계층(만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으로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합병증 발생 등의 위험이 커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료접종대상으로 포함했으며,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 예방접종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 병·의원 현황은 논산시 보건소 홈페이지(http://www.nonsang.go.kr/health/) 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nip.cdc.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예방

접종실(041-746-8036-8로 문의하면 된다.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가져와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가져와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통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토론회



김정섭 공주시장= 29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토론회에 참석.

민원상담의 날 운영



김동일 보령시장= 29일 오전 10시 30분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제20회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오후 2시 시장실에서 민원상담의 날 운영.

혁신 콘서트



맹정호 서산시장은 2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콘서트에 참석.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문정우 금산군수는 29일 오후 3시 추부농공단지에서 열리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참석.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막식



백옥희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9일 오후 2시 공주 백제체육관에서 열리는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다.

다문화이해·체험행사 '따로 또 같이' 성료

보령시는 지난 28일 보령문화의전당 일원에서 제7회 시민의 다문화이해와 체험 '따로 또 같이' 행사를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양수정)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차별 없이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과 고정관념을 변화시켜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최했다.

행사는 개회식 등 공식행사를 생략한 가운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의상을 활용한 문화체험 ▲세계 각국의 놀이문화와 액자, 바람개비 등 만들기 체험 ▲다문화 그림 전시회 ▲각국 음료 체험 등 다채롭게 진행했다.

한편, 보령시는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 지역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함께 하고자 한글 및 모국어 교육, 부모 코칭교육, 이주여성 지역적응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정기회의 및 워크숍

주요 정책 결정 기능 수행

공주시시장 김정섭은 지난 25일 아트센터 고마에서 시민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정기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지난 7월 민선 7기 1주년 기념식과 함께 출범한 정책참여 기구로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민과 함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소통위원회의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예산 및 위원회 역할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제65회 백제문화제에 대한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5개 분과위원회에서는 분과 토론

금산군, 금산흑삼·영남강철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전체 선정기업의 20% 차지

금산군 관내 업체가 4.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19년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전체 선정기업의 20%를 차지하며 기업하기 좋은 지역임을 입증했다.

총 4개 업체가 지난 5월에 신청하여 1차 서류평가, 여름에 현장 확인을 거쳐 농업회사법인금산흑삼(주)와 영남강철(주)이 최종 선정됐다.

고태훈 대표이사과 최성대 대표이사는 지난 24일에 개최된 '제26회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시상식에 참여해 유망 중소기업 지정서와 현판을 받았다.

유망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를 견인할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충남도에서 매년 10개 기업을 지정해오고 있다. 올해는 총 42개 업체가 신청했다.

금산흑삼은 흑삼(흑삼)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부리면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영남강철의 주생산품은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무용가구이며 복수면 다복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재무구조 건전성, 기술 및 품질 관리 수준, 기술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실적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인정받았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앞으로 6년 동안 중소기업 경영인정 자금 융자 지원 시 1% 추가 금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 무역보험공사, 한국표준협회 등과 연계된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산=주연기자



중국 허베이성,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벤치마킹

서산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추진상황 참관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도내 지자체 중 스마트시티 시스템 선도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25일 중국 허베이성 관계자들이 서산시의 스마트시티 추진상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도시안전통합센터를 방문했다.

충남도청과 국토자원관리 등 업무 협력관계에 있는 중국허베이성 자연자원청은, 충남도와 교류 차 한국에 방문했으며, 도내 지자체 중 스마트시티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산시를 방문해 벤치마킹했다.

이날 허베이성 관계자들은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둘러보고 센터의 역할 및 공간 성과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서산시에서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드론 관제시스템 시연이 큰 호응을 얻었다.

스마트시티는 현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어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정립하고 실제 도시에 적용할 예정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스마

트시티의 운영체제 역할을 하는 핵심 소프트웨어로 충남도에서는 서산시가 최초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축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연내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도 스마트시티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500여개의 도시를 스마트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황동희 영상정보팀장은 "중국 허베이성과 충남도청에서 서산시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업무를 발전시켜 서산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김정환기자

우리/동네

2019 회장기 및 2020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유도대회 보령시 전국 최고 선수들 대거 출전

보령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보령종합체육관에서 2019 회장기 및 2020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전국 유도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유도회(회장 김진도)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유도회와 보령시유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등 46부에 182체급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회일 뿐만 아니라 2020년 국가대표 1차선발전을 겸해서 열리기 때문에 전국 최고의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대회 첫날인 2일에는 오전 9시부터 생활체육 개인전으로 유치부와 남·여초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및 동호인부, 3일에는 단체전이 열린다.

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회장기 개인전이 진행되는데 3체급의 경기가 열리고 5일에는 초·중부 회장기 단체전과 국가대표 선발전, 6일에는 일반부와 고등부, 대학부, 7일에는 남·여 고등부와 여자 고등부, 마지막 날인 8일에는 남·여대부, 일반부 등 회장기 단체전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는 대회기간 선수를 비롯한 임원 6000여 명은 물론, 협회관계자 및 가족 등 2만 여 명이 추가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회장과 관광지 인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령 오서산 역사 군락지와 청라 은행마을, 성주산 단풍, 김죽재 등 다양한 가을 여행지와 연계한 관광지 홍보도 다채롭게 진행키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 5월 대한유도회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매년 대회를 개최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유도대회가 열린다"며, "대회기간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완벽한 운영과 지원으로 준비해 나가겠다. 시민 및 관광객, 유도가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 기자

공주시, 이달의 역사인물 김중서 선생 인문학 강연 31일 개최 [부제목: - 임선빈 강사의 인문학 강연 및 작은 음악

공주시시장 김정섭은 오는 31일 강북도서관 문화센터에서 '공주역사인물 김중서 선생 인문학 강연'을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인문학 강연은 10월 공주역사인물 김중서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하고 강연을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주 출신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선빈 강사를 초빙해 '김중서 선생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인문학 강연과 함께 백제야가람 연구단의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강석광 문화재과장은 "인문학 강연을 통해 공주시 역사인물인 김중서 선생의 업적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중서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dajeontoday.com



맛 좋은 서산 총각무 수확 한창

김장철을 앞두고 충남 최대의 총각무(알타리무) 주산지인 충남 서산시 고북면에서는 요즘 총각무 수확이 한창이다.

서산시에 재배되는 총각무는 철분과 칼슘·마그네슘·게르마늄 등이 풍부한 활토에서 서해의 갯바람을 맞고 자라 단단하고 이삭하며 이리 지 않고 고소한 맛이 나 품질

이 우수한 최고급 총각무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 서산에서는 고북면 초록·가구·정자·사기리를 중심으로 90여 농가가 130ha에서 총각무를 재배하고 있다. 생산량은 태풍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출하가격은 10kg 당 1만 3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서산 작목반 총무 김종필씨(53·가구리는 "태풍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올해는 서산 총각무로 김장을 담아 몸에 좋고 맛있는 김치도 드시고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일자리 아이디어톤 대회’ 참가자 공모 진행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의 창의적 시각으로 새로운 일자리 발굴 위해 공모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국민의 창의적 시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일자리 아이디어톤 대회’ 참가자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아이디어톤 대회는 아이디어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틈을 이루어 일정한 시간 내에 아이디어나 사업 유형 등을 도출하여 발표하는 경진대회이며, 대회의 주제는 ‘한국수자원공사 업무 및 역할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아이디어’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일자리,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본업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참가 자격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2명 이상 5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 한국수자원공사의 대국민 소통 창구인 단비톡톡 누리집에서 신청 양식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각 팀이 제출한 아이디어 제안서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 혁신성 등을 평가해 상위 10개 팀에는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일자리 아이디어톤 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대회 본선 진출 팀에는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직접 조언자(멘토)로 참여하며, 외부 전문가

를 포함한 심사단의 최종 평가를 거쳐 시상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된 우수작 중 사업성이 높거나 실현 가능한 제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대회에 대한 이해와 참신한 아이디어 기획을 돕기 위해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일자리 아이디어톤 참가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국민의 새로운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루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충남 장애인체육 지도자들, 청양에서 ‘어울림활동’ 충남지역 장애인체육 지도자들은 지난 26일 청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어울림 교류활동을 갖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통한 복지충남 조성을 다짐했다.



대전교육청,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대전광역시 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전교육청 산하 578개 전체 기관 및 학교(유치원)이 참여하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대 컨설팅 대학원 사업단, '협력기관 합동 성과보고회 및 홍보회'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컨설팅 대학원 사업단이 지난 25일 선산인 호텔 2층 루비홀에서 ‘2019년 대전 컨설팅대학원개설사업(융합컨설팅학과) 협력기관 합동 성과보고회 및 홍보회’를 개최했다.



제7회 아산시출범기협회장배 출범기대회 성료 제7회 아산시출범기협회장배 출범기대회가 10월 26일 아산시민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아산시가 후원하고 아산시체육회가 주최, 아산시출범기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관내 출범기 동호인 선수와 임원 및 가족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농협대전공판장,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초청 간담회 개최 농협대전공판장은 28일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를 초청, ‘농축산물 안전한 먹거리 소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남대 대학일자리센터, 빅데이터 과정 멘토링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한남대학교(총장 이덕훈) 대학일자리센터 소속의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단은 지난 26일 교내 무어아트홀에서 ‘빅데이터 전략 마에스트로과정 취업·창업 멘토링 및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행복도시건설 순항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

올해 연인원 309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적극적인 종합사업관리로 도로·공원 및 주택·편의시설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이 순항중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종합사업관리시스템(이하 MPAS)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주체들(행복청·LH·민간 등)의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MPAS에 입력된 각종 건설정보를 기초로 공정 및 사업비관리 등을 통하여 행복도시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 MPAS: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Program Administration System

매월 ‘종합사업관리회의’를 개최하여 행복도시건설 종합현황 및 주요공사 공정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토의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품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올해 행복도시건설을 통하여 연인원* 309만 명(9월말 기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21.7%p 증가한 수치이다.

* 연인원: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과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일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

행복청 관계자는 “그 동안 종합사업관리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도시 가치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명품도시로의 도약과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태성기자

공주시, 제4회 다문화가족

신바람 대축제 열려



공주시(시장 김경섭)는 지난 26일 산성시장 내 문화공원에서 ‘2019년 제4회 다문화가족 신바람 대축제’를 개최했다.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김경섭 시장과 박병수 시장의 의장을 비롯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누리, 다행복, 다나눔’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지역청년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청소년이 함께 어울려 의미 있게 놀고자 만든 koka커피의 식전공연에 이어, 모범 다문화가족 26명의 표창 수여와 각 읍면동 다문화가족들의 행복모임에서 그동안 연습해온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열띤 화합무대가 펼쳐졌다.

특히, 올해는 공주시 다문화가족협의회(회장 임금화)가 지난해 2월 구성된 이래 처음으로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다문화가족들의 활동작품과 소장하고 있는 전통 생활용품 등을 전시한 다문화 홍보관과 포토존 등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공주=정성범기자

충남도교육청, 2019 충남 농업계고 합동작품전시회 개최

서산중앙고 교정 ‘가을향기, 학교와 마을이 만나다’ 주제로 전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산중앙고 교정 류재풍) 교정에서 ‘가을향기, 학교와 마을이 만나다’라는 주제로 충남농업계고 합동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해부터 지역과 함께하기 위해 충남 각 지역에 분포된 농업계고 교정에서 합동



국화전시회를 순회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그 두 번째로 서산중앙고 교정에서 가을을 장식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국화와 함께 각 학교 실무과목에서 산출된 프로젝트 수업작품이 전시돼 농업계고 특성을 담은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감상할 수 있으며, 서산중앙로 발발

국화축제, 2019 먹거리길 길거리축제와 같은 행사가 전시회장을 중심으로 펼쳐져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지역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이 행사에는 인근 학교 동아리가 음악발표대회와 서산청소년 스타킹 예선대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국화향기 가득한 교정에서 자신의 끼를 한껏 발휘할 예정이며, 전시장 주변에서는 세밀화와 시화가 전시되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국화머그컵만들기, 국화나누기, 드론날리기와 같은 다채로운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사회가 계속 변화함에 따라 우리 교육도 점진적인 진화를 거듭해야 한다”며, “농업계고가 지역으로부터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는 학교가 아닌 지역과 다리를 잇는 플랫폼과 같은 미래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당진 면천주민자치위원회, 면천 꿈나무 쉼터 운영

지역 어른들이 만들어준, 아이들이 쉬고 놀 수 있는 곳

당진시 면천면 주민들이 지난 25일부터 지역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 ‘면천 꿈나무 쉼터’ 운영을 시작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면천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꿈나무 쉼터는 시골마을에서 갈 곳이 없어 방황하던 아이들에게 놀이와 학습 공간을 마련해주고 자 면천 마을계획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부모들이 제안했다.

이 제안은 면천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를 얻어 지난 7월 8일 열린 면천면 지역

첫 번째 주민총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찬성표를 받으며 주민자치 사업으로 실행기로 결정됐다.

이후 쉼터를 마련한 장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노력으로 학교 인근 건물 1층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었고,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학부모들이 협력해 운영 중이다.

현재 이곳에는 아이들이 독서와 학습을 할 수 있는 공부방과 보드게임 등이 준비된

놀이방,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홀로 구성돼 있다.

면천면과 면천면주민자치위원회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 면천 꿈나무 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면천면 관계자는 “면천 꿈나무 쉼터가 미래세대의 희망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자 또래 친구들과 추억을 쌓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 ‘천방지축 발효축제’ 성료

마을 특성에 맞는 대표축제로 마을의 변화 이끌다

예산군은 지난 25일 대술면 방산리에서 1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천방지축 발효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019 예산군 시군역량강화 ‘마을축제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군에서 위탁운영 중인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와 방산리 마을 부녀회 중심으로 천방지축협동조합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했다.

이번 축제는 주민들이 단합하는 장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문화공연 등 이공임선생 고래과 아게이산해사당길, 한갓길 선비길로 이어지는 마을길 둘러보기 등으로 참여자들의 신선한 반응을 이끌었다.

또한 이번 축제에서는 대흥 대불리 온새미로 농악놀이, 신양 만사리 하모니카 공연, 신양 무봉리·영봉 건지화2리·예산군행복

마을지원센터 문화복지협의회에서 체험부스를 운영해 더욱 풍성한 장이 됐다. 평가다. 아울러 서울 노원문화원 국악예술단에서 재능기부로 진행된 공연은 농촌마을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문화공연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황선봉 군수는 “앞으로 방산리 천방지축 발효축제가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는 물론 마을축제의 대표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충남대 법률센터, 찾아가는 법진로 교육 실시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센터장 손준학 교수)는 균형 있는 법진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지역 초등학교·중학교에 찾아가는 법진로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9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산폴리텍대, 2019년 프로젝트 작품 전시회 개최 한국폴리텍대학 이산캠퍼스(학장 장우영)는 25일, 대학본관3층 대강당에서 재학생들이 연구, 제작한 작품을 바탕으로 2019년 프로젝트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4회 공주시 청소년 푸른나래 축제 열려 공주시(시장김정섭)는 지난 26일 금강산관광원에서 제14회 청소년 푸른나래축제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유롭고 당당하게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당진시 석문면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당진시석문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병근)는 지난 26일 가을철을 맞아 그동안 배운 실력을 주민들에게 자랑하는 2019년 석문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음악분수대에서 개최했다.



대전 도시공사 후원, 대전 오월드 꽃축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오월드에서 지난 26일 대전 도시공사, 국제로타리3680지구백제로타리클럽 및 아름다운사람들 후원으로 소아암 백혈병어린이를 위한 오월드 꽃축제를 진행했다.



유등노인복지관, 서구 도마동 저소득가정에 LED전등 교체 유등노인복지관은 28일 서구 도마동 저소득가정 30여가구 대상으로 LED전등교체를 실시했다. 박명래 관장은 "우리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전기요금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고 대상자에게 한발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단풍에 물든 대청호오백리길,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

'대청호오백리길 걷기축제 · 할로윈&호박축제' 성료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과)과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최철규는 10월 28일(토) 대청공원에서 개최된 '2019 대청호오백리길 걷기축제 · 할로윈&호박축제'에 7,000여명(걷기축제 참가자 1,500명, 할로윈&호박축제 3,500명, 두메마을 2,000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걷기축제는 대청공원을 출발하여 미호교, 삼정정수장, 로하스 오토캠핑장을 돌아오는 10km 코스로, 지체장애인 가족 100여명을 초청하여 시민들과 함께 가을 단풍에 물든 대청호 수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했다. 특히 올해에도 50%가 넘는 타 지역 방문객이 참가하여 대청호의 생태테마 관광지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이날 함께 치러진 할로윈&호박축제는 22가지의 호박으로 구성된 호박탑, 호박 포토존 등 다양한 방문객과 젊은층의 큰 호응을 받았고, 키드존에서는 에어바운스, 마술공연, 버블공연과 솜사탕 나누기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축제를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편 주민들이 직접 호박을 재배하여 전시한 이현동 두메마을에서는 호박터널과 조롱박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하여 조용했던 대청호변 농촌마을이 이번 축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 농촌관광마을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대전마케팅공사 최철규 사장은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치러지는 행사로 의미가 크다"며 "대청호오백리길 걷기축제, 호박 요리 대회, 호박 요리 푸드트럭, 세계 호박전시회가 열렸으며, 야간에는 '블레이즈'의 강렬한 조명쇼와 할로윈 퍼포먼스가 행사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할로윈 EDM과

김태선기자

백석대 · 백석문화대 평생교육원

민간경비 신입교육 3년 인증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 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 교육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민간경비 신입교육 부문 3년 인증을 받았다. 양 대학 평생교육원은 2015년 경찰청으로부터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일반경비원 4,717명, 특수경비원 531명 등 총 5,248명의 경비원을 배출했다.

특히 백석대학교 경찰학부와 백석문화대학교 경찰경찰학부 교수진으로 유능한 경비분야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여 타 기관과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해 교육생과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일반시설이나 아파트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은 월 2~3회 실시하며, 공항, 철도, 항만, 정부청사 등 국가주요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은 월 1회 실시하고 있다. 일반경비원 교육에서는 경비업법,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을, 특수경비원 교육에서는 총기 조작 및 실습, 사격, 체포·호신술, 총검술 등을 진행한다.

백석대학교 · 백석문화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이밖에도 일반교육과정, 학점은행제 과정, 백석휴머니티스피치과외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41-550-8721)나 홈페이지(<http://edu.buackr>)로 문의할 수 있다.

김정환기자

대전대 UINC+사업단 '청년

리빙랩해커톤 시상식'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UINC+사업단(이영환 단장) 지역협력비즈니스센터가 지난 25일 대학 산학협력관에서 '2019 청년 리빙랩 해커톤'에 대한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대전광역시와 주관하고 대전대 UINC+사업단과 대전광역시 사회자본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전을 직접 만들 주인공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실시했다.

행사에는 대전대 이종근 교학부장을 비롯한 UINC+사업단 박시용 부단장과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이근수 사무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 리빙랩 해커톤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을 대상으로 심사가 실시됐다.

이에 대상대전광역시시장상에는 batellife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최우수대전대총장상에는 공차 팀과 땃스팀이 차지했다. 우수대전대 UINC+사업단장상에는 빛과함께 팀과 NEO SOL 팀, 중등지킴이 팀이, 장려대전대 UINC+사업단장상에는 Gr8on Makas 팀, 어스어스 팀이 수상했다.

서산교육지원청, 제4회 서산수학축제

'즐거운 수학체험 나들이' 서령고 다목적관에서 진행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선희)은 '즐거운 수학체험 나들이' 제4회 서산수학축제를 지난 26일 개최했다.

서령고 다목적관에서 진행된 서산수학축제는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000여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부스에서 진행되는 수학체험에 참여하고, 수학교과 산출물 등을 관람하며 수학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수학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융합적 사고력이 뛰어난 인재가 되기

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교과목이다.

이번 수학축제는 다목적관 1층에서 방탈출게임을 진행하였고, 2층에서는 관내 수학교사들이 기획한 36개의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그동안 수학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 산출물들도 전시됐다.

서산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수학교육연수와 수학교육 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서산=김정환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협회가 작사 공모전

"밝은 내일 있는 그곳" 대상 선정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사진, 이하 "건협")에서 개최한 협회가 작사 공모전에서 김조아 씨가 작사한 "밝은 내일 있는 그곳(부제)"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총 429편의 작사 글은 예심을 거쳐 지난 14일 삼육대학교 박정양 음악학과 교수, 동서대학교 홍지수 실용음악학과 교수, 흥복한소리 공승민 작사가·PD, 이은정 작곡가·음악감독, 건협 최상철 홍보기획실장 등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심을 진행,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참가상 등 4개 부문 14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송병배기자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금산 진악산 보석사 한마음 등반대회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한마음 등반대회가 지난 27일 금산 진악산 보석사에서 김진규 총재를 비롯한 500여명의 회원과 문정우 금산군수를 비롯한 지역내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김진규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처음으로 356-B지구 관할지역에서 개최하는 등반대회가 금산지역 회원분들의 협조 덕분에 성황리에 개최되게 됨에 감사드리며, 1100여년의 수명을 자랑하는 은형

나무의 기운이 회원 모두에게 널리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규 총재는 이날 보석사 선일주지스님께 방문패를 전달하고 행사 협조에 감사의 인사말을 함과 동시에 수고한 라이온에 대한 표창패도 수여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김귀성 4-2지대 위원장은 LCF \$1,000을 기탁하였고, 전재규 금산L.C 회장은 봉사금 100만원을 각각 기탁하였다.

김정환기자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창립 70주년 기념

적십자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페스티벌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회장 정상철)는 지난 26일 KT인재개발원에서 적십자 봉사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2019 적십자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암그룹(회장 이연규)이 후원하고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가 주최한 행사로 인도주의 사업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인 자원봉사자 가족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자원봉사자, 후원자, 수혜자 간의 화합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봉사하는 당신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인도주의 활동영상 시청,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비전선포식, 허태정 대전시장의 재난구호 급식차량 전달, 조상호 세종정부무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축사, 그리고 축하공연 등으로 이루어졌다.

후원그룹 ㈜정암 이연규 회장은 "일선에서 항상 수고하는 봉사원들이야말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빛을 밝혀 주는 훌륭한 분들이다"며 "대전세종 적십자사의 70주년을 축하드리며, 대전세종 적십자사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우빌딩 7층

기고

재난대응훈련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키세요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최근 상영된 재난 영화 <엑시트>는 유독가스 테러 재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사람들의 시뮬러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건물의 직원은 유독가스를 피해서 사람들을 옥상으로 대피시키고, 사람들의 휴대 폰 불빛을 활용해서 'SOS' 구조신호를 보낸다.

그들이 보여준 생존법들은 우리 주변의 대규모 점포, 터미널, 노인전문병원 등의 시설에 조적되어 있는 '자위소방대'의 대피유도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지난 2017년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8년 요양병원 화재 시 사람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지 못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9월 청주의 한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의료진과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환자 13명 모두를 안전하게 대피시켰던 것이다.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었을까? 이 병원은 평소 주기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병원의 참여 속에 불시 화재대피 훈련도 실시하고 있었다. 화재 당일 환자들을 대피시킨 직원은 "매뉴얼대로 신속히 대응해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평소 매뉴얼에 준해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요령을 잘 이해하고, 화재 시에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평소 훈련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직원이 말한 '매뉴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영화관, 대형마트와 같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건물관리자들을 중심으로 만든 '자위소방대'라는 비

상조직을 갖추고, 재난 발생 시 대피 방법, 소화전 사용, 긴급구조기관 연락 등을 수록한 '재난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이 매뉴얼에 따라 평소 종사자들이 대응훈련을 하고, 긴급구조기관인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 자치단체, 중앙부처 등 많은 기관이 협력해서 지역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매뉴얼에 따라 매년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민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올해로 15년 차를 맞았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규모에 따라 자위소방대에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이 모든 조직의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인력·자원이 있으면 이를 보완토록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다섯 동안 개최된다.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항화재 대응훈련, 국가방사능 방재 연합훈련,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훈련 등 총 570여 회의 유관기관 합동 현장훈련을 실시

한다. 또 소방과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도 이러한 훈련에 참여해서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며 신속한 인명구조 훈련을 한다.

특히 올해는 전국 어린이집 3만 7000여 곳을 비롯해 병원, 청소년수련시설, 전통시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대피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30일 오후 2시부터는 전국 초·중·고교와 어린이집·유치원,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일제히 참여하는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소방, 경찰 등 행정기관의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국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동참한다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재난대응 안전한 한국훈련을 계기로 우리 주변에 위험한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재난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기억한다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사설

빛으로 달성한 성장률이 뭘 의미있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0.6%)를 크게 밑도는 0.4%에 머물렀다. 기업으로 치면 어닝쇼크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로써 한국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할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할 듯하다. 2%에 도달하려면 4분기 GDP 증가율이 잠재성장률(0.67%)보다 높은 0.97% 이상의 '경제 과열'이 발생해야 하는데, 작금의 수출 여건 또는 재정여력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장률 2% 달성 여부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1980년 석유파동과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는 성장률 2% 미만을 경험해왔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있다. 당시 위기는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충격적인 반면 지금은 눈에 띄지 않게 점진적으로 무거워져 가는 점에 다르다. 정부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이

이렇게 만들었다. 세수 호황의 기회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데 쓰지 않고, 단기 일지리나 선심성 복지를 늘리는 데 치중했다. 노동 개혁·규제 철폐 같은 인기 떨어지는 일은 외면하고, 최저임금·주 52시간·정규직화 등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만 고집했다. 그 여파로 세수가 쪼그라들자 이제는 후대가 깊어야 할 빛으로 성장률 2%를 만들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집권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정반대로 했다. 강성노조에 굴하지 않으며 노동개혁을 밀어 부쳤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인하하고, 스타트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은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 그 결과 지금 프랑스는 십수 년 이래 최저 실업률을 기록 중이며, 경제 활력은 독일도 능가할 기세가 됐다. 이렇듯 저성장을 극복하는 열쇠는 개혁뿐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 성장동력 확보와 투자확대 등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경제체질 개선이 정부가 할 일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2%를 달성'할 필요는 없다. 빛으로 쌓아올린 사상누각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정시·수시 비중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

대학입시제도에 갑작스런 방향 선회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의 공정성을 언급하며 정시 비중을 상향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교육계가 상당히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교육문제에 민감한 우리 현실에서 대학입시와 관련한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학생·학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서 촉발된 교육의 불공정성 문제는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입시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켰다. 유엔에 교육부장관은 학종의 공정한 개선을 약속하면서도 정시·수시비율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었는데 대통령이 사실상 정시 확대를 언급한 것이다.

게다가 엇그제 열린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정시·수시보다 공정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학종의 문제점이 속속 민천하에 드러나면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학종이 지목된 것이다. 학생부 한 줄을 기록하기 위한 영역의 활동이 학생들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이라고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등 외부적 요인이다. 부모찬스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고교 수준 이상의 논문, 봉사활동, 인턴활동이 이루어지고 대학입시

에서 열린 문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학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고 믿는 것은 수시의 불공정성에 대한 위화감과 불신이 얼마나 큰 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교육부는 학종 비율이 높은 수도권 상위대학에 대해 40%선까지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교육부도 대통령의 정시 강화 방침에 정시비율 상향조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11월 중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시기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학종을 도입했을 때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큰 목표가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임시 주체의 불신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전국 교육감들과 진보 단체들이 정시 확대에 대해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고소득층만 유리한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학종 또한 일부 특수계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편법이 가능하였기에 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줄속 정책이 아니라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장 공정한 백년대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고

행락철 주의하면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면서 단풍놀이, 수학여행 등으로 차량통행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촌 들녘은 가을 추수로 인해 도로에는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운행이 많아지고 벼·고추 등 농작물들도 도로변에 널여 밀리고 있어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특히 가을철은 해가 저물면서 기온이 급 하강해 생기는 안개 현상 때문에 야간 운전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운전자들은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조심해서 운전해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갈 길이 멀다고 마음을 조금씩 먹고 달리거나 항행색채 단풍이 물들은 산을 바라보면서 운전하는 것은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음을 넉넉하게 먹고 시야를 넓게 확보하는 운전 습관을 가지는 것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

법이라고 생각한다.

운전자들은 스스로 주의를 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어겼음에도 본인 잘못은 모르고 오히려 민속하는 경찰관만을 야속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통사고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생각이다.

단속하는 경찰관을 탓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자각하여 교통법규를 지켜 이 바쁜 행락철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라도 주위를 기우려 조심 운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이다.

공공기관 정원 40만 돌파...작년 인건비만 23조 6500억원 달해

경영평가에서 일자리창출 실적 배점 가장 높아...실적개선 보다 신규인력 뽑기에 급급

공공기관의 실적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리하게 인원을 늘리는 한편,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공공기관에게 신규채용에 대한 경영평가 항목을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인력충원에 나서도록 내몰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읍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5년 12조5천억원, '16년 15조 4천억원에서 '17년 7조 2천억, '18년 7천억원으로 급감했다.

이 중에서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의 당기순이익은 '14년 4조3천억원, '15년 4조 9천억원, '16년 9조원, '17년 4조2천억원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8년 2조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14년

2조7천억원, '15년 8조8천억원, '16년 6조3천억원대의 비교적 건실한 흑자구조였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17년 1조2천억 흑자로 줄어들었고, 지난해는 마이너스 1조1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기재부가 승인해 준 362개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원을 살펴보면 '16년 32만 8,716명이었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17년 34만 6,715명, '18년에는 38만 332명, '19년 2/4분기 현재 40만 7,19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신규채용도 '15년 1만 9,373명, '16년 2만 1,059명, '17년 2만 2,637명이던 수준에서 지난해 '18년에는 3만 3,900명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인원(현원)도 '16년 30만 8,112명에서 '19년 현재 37만 3,507명으로 6만5천명 가량 증가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만도 대략

14년 18조 6천억원, '15년 19조 7천억원, '16년 21조 1천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17년 22조 801억원, '18년 23조 6천5백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실적악화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닌 일자리 제공,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방식이 새롭게 변경되어 경영관리 55점 중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점수가 24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실적은 가장 높은 7점으로 경영전략 및 리더십 4점, 업무효율 5점, 혁신과 소통 5점보다 월등하게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경영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실적개선 보다 정규직 정원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경영평가가 높아야 성과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실적 개선보다 신규인력 충원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18년 공공기관의 혁신 성과로 소득주도과 일자리 중심 경제 등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와 '19년도 일자리 중심 경제 지속 선도를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선도'를 통해 신규인력 충원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슬림화와 경쟁력 강화 등이 목표였지만 문 정부 들어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당기순이익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기업도 글로벌시대에 맞춰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만 지나치게 강조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복 기자

다음달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 83.2 전월비 0.2p 하락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연본부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 26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전망조사 결과, 다음달 대전세종충남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전월대비 0.2p 하락한 83.2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이 불안해지고 경영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체감되는 실물경기도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달 대전세종충남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83.2로 전월대비 0.2p, 전년동월대비 0.8p 하

락했다. 이중 제조업은 전월대비 1.6p 상승했고,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1.8p 하락했다.

10월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들의 경영여로 사항으로 '인건비 상승(56%)'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내수부진(47.8%)', '인력

확보난(25.7%)', '업체간 과당경쟁(20.5%)', '원자재 가격상승(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대전세종충남의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 71.2% 대비 1.1%p 상승한 72.3%로 조사됐다. 송병배 기자

고용노동부 퇴직자 출신 업체들 취업성공률 민간위탁비 연 38억원 책거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별 사업비 지급현황과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근무이력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출신 퇴직자 이하 노동부 출신은 8명이었으며, 8 대표는 2018년말 현재 21개 센터운영을 통해 38억8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은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총26개소 중, 노동부 출신 대표자가 운영하는 위탁기관 수는 57개소(9.1%)로 파악되었는데, 이 업체들 외 대리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부처출신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체 수는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2018년 기준, 626개 위탁기관 사업비는 총 1,570억 여원(157,012,200,000원)이며 노동부 출신 대표자 운영기관 57개소에 지급한 사업비 총액은 120억7천400여만원(12,074,800,000원)으로 총액의 7.7% 금액이다.

57개소중 A 업체는 특정지역에 21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38억8천만원의 위탁사업비를 지급받았

다. A업체가 소재한 특정지역 전체 91개소중 23%, 즉 4곳중의 1곳이 노동부출신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이었다.

57개소중 B업체는 전국에 15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37억1천만원의 위탁사업비를 1년동안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프로그램 강의의 질이 낮은 반면 강의료는 높고,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 민간위탁의 수익보장에 치우치는 사업이라는 각종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인 바, 교육훈련생 중심 교육과 취업제도 방안에 대해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대표자의 특정 이력에 의해 선정되거나, 고비용을 보장해주는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자료분석 결과에 대해 "노동부는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이 업체의 수익보장을 위한 사업이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상시화할 것"을 주문했다.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내선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매달내선 042)538-1602 광고신청내선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양인쇄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